국어 문법 이해·적용 학습지

어문 규범편

맞춤법 · 띄어쓰기 · 문장 부호 · 표준 발음 — 이해·적용 80문항

원고 v0.2.1 · PDF v1.1 · 문법09-01~14 · 이해·적용 80문항 · 선택형 40문항 / 서답형 40문항

어문 규범 · 무엇을 판단할까?

문법09-01~14 | 표기·띄어쓰기·부호·발음을 구별하기

A · 소리와 형태를 표기에 담기

왜 이렇게 적을까?

소리의 반영 · 형태 유지
두음 법칙 · 불규칙 활용

B · 헷갈리는 표기 가르기

어떤 표기가 맞을까?

사이시옷 · 준말
뜻과 문법적 기능

C ·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

어디를 나눌까?

조사 · 의존 명사 · 보조 용언
문장 부호

D · 표준 발음

어떻게 읽을까?

원칙과 허용 · 모음 · 장단
받침·동화·첨가

표기가 같아도 발음은 달라질 수 있고, 발음이 같아도 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대치동 재우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한눈 지도 — 묶음 목차

묶음	핵심 질문	개념ID	문항
A1	들리는 대로만 쓰면 더 편하지 않을까?	문법09-01	001~005
A2	된소리로 들리면 모두 쌍자음으로 쓸까? — 소리와 다르게 적는 말	문법09-02	006~010
A3	단어 중간의 '렬·률'도 '열·율'이 될까?	문법09-03	011~015
A4	원형을 밝힌다면 '듣어'라고 써야 할까?	문법09-04	016~020
B1	된소리가 나면 사이시옷도 넣을까?	문법09-05	021~025
B2	'돼'는 언제 쓰고, 준말은 어떻게 적을까?	문법09-06	026~030
B3	'안·않', '-던·-든', '로서·로써'는 무엇으로 가를까?	문법09-07	031~035
B4	뜻과 형태에 맞는 말은 어떻게 고를까?	문법09-07	036~040
C1	조사는 단어인데 왜 붙여 쓸까?	문법09-08	041~045
C2	같은 '뿐·대로·만큼·만·지'인데 왜 띄어쓰기가 다를까?	문법09-08	046~050
C3	보조 용언은 붙여 써도 모두 맞을까?	문법09-09	051~055
C4	문장 부호는 숨 쉬는 곳에만 찍을까?	문법09-10	056~060
D1	허용 발음은 틀려도 봐주는 발음일까?	문법09-11	061~065
D2	'-ㅢ'는 언제 [의], [이], [에]로 읽을까?	문법09-12	066~070
D3	소리의 길이는 글자 수나 목소리 높이일까?	문법09-13	071~075
D4	받침 뒤 소리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	문법09-14	076~080

' ' 안은 살펴볼 표기, 발음 예에 쓰인 [ ]는 실제 발음이다. 표의 '/'는 비교하는 항목이나 복수로 인정되는 형태를 문맥에 맞게 구분한다. 장단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D3 이외의 발음 예에서는 별도 언급이 없으면 소리의 길이를 표시하지 않는다.

A 소리와 형태를 표기에 담기

A1 들리는 대로만 쓰면 더 편하지 않을까?

개념ID: 문법09-01

짧은 답 **소리를 적으면서도 같은 뜻을 가진 부분은 알아보기 쉽게 유지한다.**

정의

한글 맞춤법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의 말	쉬운 뜻	예
소리대로 적되	표준어의 소리를 반영한다	나무, 바다
어법에 맞도록	뜻을 가진 부분의 모양을 밝혀 적는다	꽃이, 꽃만, 꽃도

Q ‘꽃이’는 [꼬치]인데 왜 ‘꼬치’로 적지 않을까?

‘꽃이’는 ‘꽃+이’로 이루어져 있다. ‘꽃만’은 [꼰만], ‘꽃도’는 [꼳또]로 소리가 달라지지만, 모두 식물의 꽃을 가리킨다. ‘꽃’을 일정하게 적으면 같은 뜻의 부분을 눈으로 알아보기 쉽다. ‘꽃이’를 [꼬치]로 읽는 것과 ‘꽃이’로 쓰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Q 형태를 밝힌다는 말은 띄어 쓴다는 뜻일까?

아니다. ‘꽃’과 조사 ‘이’의 형태를 구별하여 적으면서도 ‘꽃이’처럼 붙여 쓴다. 형태를 밝혀 적는 원리와 띄어쓰기 규칙은 구별해야 한다.

비유와 한계

‘꽃’이라는 글자는 여러 옷을 입어도 유지되는 이름표와 비슷하다. 소리가 달라져도 뜻의 공통점을 드러낸다. 다만 실제 표기는 모든 원형을 기계적으로 복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불규칙 활용처럼 바뀐 모습을 적는 규칙도 있다.

오해 ×	바른 판단 ✓
발음과 글자가 다르면 틀린 표기이다.	소리는 달라도 형태를 밝혀 적은 표기일 수 있다.
원형을 밝혀 적으면 단어 사이를 모두 띄운다.	조사 ‘이’는 앞말 ‘꽃’에 붙인다.

같은 꽃, 달라지는 소리

글에서는 뜻의 공통점을, 말에서는 실제 발음을 본다.



표기

꽃이 · 꽃만

공통 형태 '꽃'을 유지

발음

[꼬치] · [꼰만]

앞뒤 소리에 따라 달라짐

꽃 + 이 → 꽃이

꽃 + 만 → 꽃만

형태를 구별하여 적어도 조사는 앞말에 붙인다.

발음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표기를 '꼬치·꼰만'으로 바꾸지 않는다.

규범-001 선택형

'꽃이 [꼬치], 꽃만 [꼰만], 꽃도 [꼳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세 표현은 모두 실제 발음을 잘못 적은 것이다.
② '꽃만'은 소리대로 '꼰만'이라고 써야 한다.
③ 같은 뜻을 가진 '꽃'을 일정하게 적어 의미의 공통점을 드러낸다.
④ 형태를 밝히려면 '꽃 이'로 띄어 써야 한다.
⑤ 한글 맞춤법은 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규범-002 서답형

'밭이'의 발음이 [바치]일 때, '바치'가 아니라 '밭이'로 적는 이유를 '밭'과 '이'의 관계를 포함하여 쓰시오.

답: _____

근거·설명: _____

_____

규범-003 선택형

표기의 원리에 대한 판단으로 알맞은 것은?

① ‘꽃이’를 [꼬치]로 읽으면 맞춤법 위반이다.
② 형태를 밝히는 표기에서는 모든 형태소를 띄어 쓴다.
③ 글자로 적은 모습과 발음은 언제나 일치한다.
④ 소리를 반영하는 원리와 형태를 밝히는 원리는 함께 쓰일 수 없다.
⑤ ‘나무’는 소리를 반영하여 적은 예로 설명할 수 있다.

규범-004 서답형

친구가 “들리는 대로만 쓰면 같은 단어인지 더 쉽게 알 수 있어.”라고 말했다. ‘꽃이·꽃만’을 이용하여 이 말의 한계를 설명하시오.

답: _____

근거·설명: _____

_____

규범-005 선택형

형태를 밝혀 적는 것과 띄어쓰기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꽃이’는 한 덩어리로 쓰므로 형태소도 하나이다.
② ‘꽃이’는 ‘꽃’과 ‘이’를 구별하여 적되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③ ‘꽃 이’는 형태를 분명하게 하므로 바른 띄어쓰기이다.
④ ‘꽃만’의 표기는 [꼰만]이라는 발음이 잘못임을 보여 준다.
⑤ 표기에서 형태를 유지하면 발음도 반드시 유지된다.

A2 된소리로 들리면 모두 쌍자음으로 쓸까? — 소리와 다르게 적는 말

개념ID: 문법09-02

짧은 답 **된소리가 나는 까닭과 규정의 예외를 함께 보아야 한다.**

정의

된소리 표기는 [ㄲ, ㄸ, ㅃ, ㅆ, ㅉ]로 나는 소리를 글에서 어떻게 나타낼지 정하는 문제이다. 된소리 발음과 쌍자음 표기는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조건·사례	표기	설명
한 단어 안의 두 모음 사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어깨, 아끼다	된소리를 쌍자음으로 적음
한 단어 안의 ㄴ·ㄹ·ㅁ·ㅇ 받침 뒤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잔뜩	쌍자음으로 적음
ㄱ·ㅂ 받침 뒤에서 규칙적으로 나는 된소리	국수 [국쑤], 갑자기 [갑짜기]	보통 예사소리 글자로 적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	똑똑, 쌉쌀	ㄱ·ㅂ 뒤라도 쌍자음 표기가 나타남

Q 된소리 말고도 소리와 다르게 적는 말

규정	발음	표기	적는 방법
구개음화	같이 [가치], 굳이 [구지], 맏이 [마지]	같이, 굳이, 맏이	원래 받침 ㄷ·ㅌ을 살려 적음
‘ㅢ’	무늬 [무니], 희망 [히망]	무늬, 희망	소리가 [ㅣ]여도 ‘ㅢ’로 적음 → D2에서 발음을 다시 다룸

‘뚜렷한 까닭 없이’란 앞 받침 ㄱ·ㅂ처럼 된소리로 바뀔 만한 규칙적 이유가 없는데도 된소리가 난다는 뜻이다.

Q ‘국쑤’라고 적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수’에서는 앞의 ‘ㄱ’ 받침 때문에 뒤의 ‘ㅅ’이 [ㅆ]으로 난다. 이런 규칙적 발음까지 모두 표기에 옮기지는 않는다. ‘깍두기’도 [깍뚜기]로 읽지만 ‘깍두기’로 적는다.

Q [가치]로 읽는 ‘같이’도 소리대로 적을까?

‘같이’는 ‘같-’과 ‘-이’의 관계를 드러내어 적는다. ‘무늬’도 발음은 [무니]이지만 표기는 ‘무늬’이다. 소리 하나만 듣고 표기를 확정하면 말의 구조와 개별 규칙을 놓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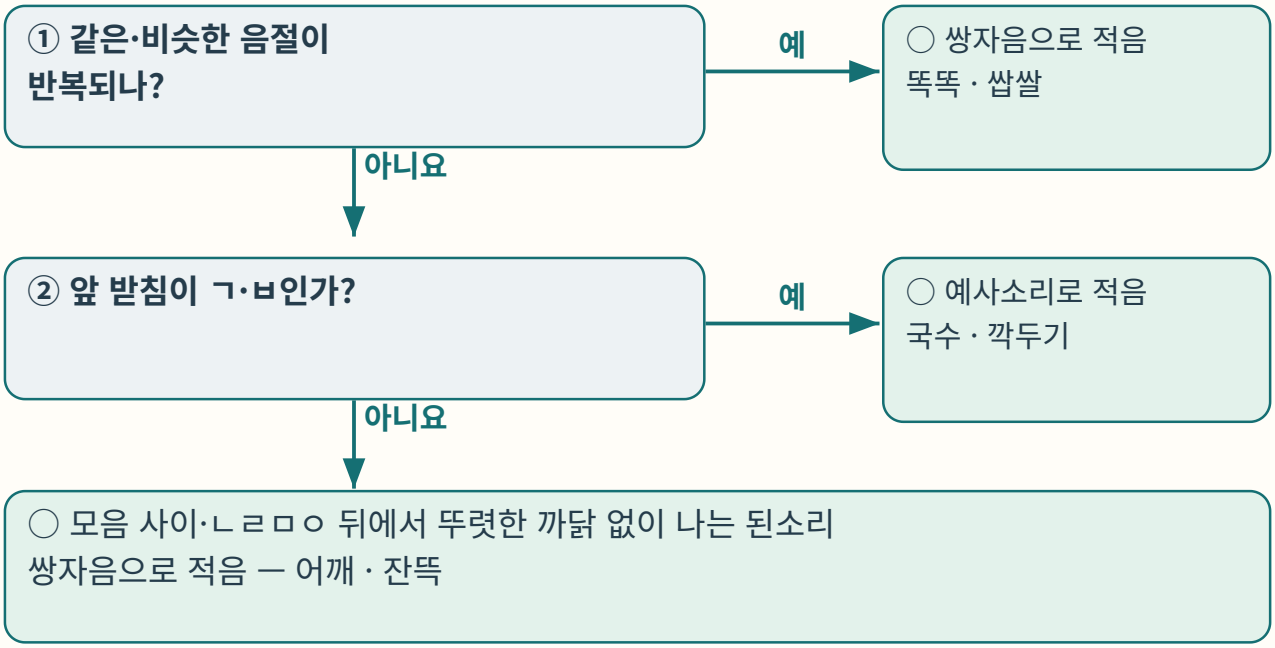
비유와 한계

체온이 38도로 같아도 감기 때문인지 막 뛰고 와서인지에 따라 대처가 다르다. 된소리도 소리는 같지만 생긴 이유에 따라 적는 법이 다르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이유가 뚜렷한가'는 내 느낌이 아니라 규정이 정해 둔 조건으로 판단한다.

된소리 표기, 무엇부터 볼까?

한 단어 안의 된소리 표기: 반복 여부 → 앞 받침 확인



적용 범위: 맞춤법의 된소리 표기 규정에 해당하는 말.
합성어·활용형 등은 말의 짜임에 따른 표기 규칙도 함께 확인한다.

규범-006 서답형

'국수'를 [국쑤]로 읽더라도 '국쑤'로 적지 않는 이유를 앞 받침과 관련지어 쓰시오.

답: _____

근거·설명: _____

_____

규범-007 선택형

표기와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① 깍두기 — [깍뚜기]
② 국쑤 — [국쑤]
③ 갑짜기 — [갑짜기]
④ 무니 — [무니]
⑤ (‘함께’의 뜻) 가치 — [가치]

규범-008 서답형

“ㄱ이나 ㅂ 받침 뒤에는 쌍자음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똑똑·쌉쌀’로 반박하시오.

답: _____

근거·설명: _____

_____

규범-009 선택형

다음 두 예를 비교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가) 어깨
(나) 국수 [국쑤]

① (가)와 (나)는 모두 쌍자음으로 고쳐 적어야 한다.
② (가)는 ‘어개’, (나)는 ‘국수’로 적어야 한다.
③ (나)의 [국쑤]는 비표준 발음이다.
④ (가)는 쌍자음으로 적고, (나)는 받침 뒤의 규칙적인 된소리를 표기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⑤ (가)와 (나)는 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예이다.

규범-010 서답형

아래 글에서 잘못 적은 두 낱말을 고치시오.

‘그 무니가 마음에 들어서 친구와 가치 골랐다.’

무니 → _____

가치 → _____

A3 단어 중간의 ‘렬·률’도 ‘열·율’이 될까?

개념ID: 문법09-03

짧은 답 **한자음의 위치뿐 아니라 앞 음절의 끝소리와 단어의 짜임도 영향을 준다.**

정의

두음 법칙은 일정한 한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 ‘ㄴ·ㄹ’이 탈락하거나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표기에서는 관련 조건과 예외를 함께 적용한다.

한자음의 첫머리 변화	첫머리	첫머리가 아닐 때
녀·뇨·뉴·니 → 여·요·유·이	여자	남녀
랴·려·례·료·류·리 → 야·여·예·요·유·이	역사	경력
라·래·로·뢰·루·르 → 나·내·노·뇌·누·느	노동	근로

Q 첫머리가 아닌 ‘률’은 항상 ‘률’일까?

그렇지 않다. 한자음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 ‘열·율’로 적는다. ‘비율·나열’은 모음 뒤이고, ‘백분율’은 ‘ㄴ’ 받침 뒤이다. ‘확률·법률’은 그 밖의 받침 뒤이므로 ‘률’을 유지한다. 이 조건을 다른 한자음의 ‘ㄹ’에 무조건 확대하지 않는다.

Q ‘신여성’은 첫 음절이 아닌데 왜 ‘여’일까?

‘신-’처럼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자립적인 말 ‘여성’ 앞에 붙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글자 순서만 세어 ‘신녀성’으로 바꾸면 안 된다.

Q ‘삼 년’과 ‘라디오’는 왜 그대로일까?

의존 명사 ‘년’에는 해당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디오’는 한자어도 아니다. 두음 법칙을 모든 첫소리 ‘ㄴ·ㄹ’을 없애는 규칙으로 이해하면 틀린다.

비유와 한계

단어 첫머리는 건물의 출입구와 비슷하고, ‘신-+여성’은 별도 건물 앞에 표지를 세운 것과 비슷하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신-’ 같은 표지는 눈에 보이는 공백이 없으므로, 글자 순서가 아니라 낱말의 짜임(신- + 여성)을 따져야 알 수 있다.

첫머리만 볼까, 앞 음절도 볼까?

두음 법칙은 대상·위치·결합 구조를 함께 본다.

판단할 자리	바른 표기	조건·비교
한자음의 첫머리	여자 · 역사 · 노동	남녀 · 경력 · 근로와 비교
단어 중간의 렬·률	나열 · 비율 · 백분율	모음 또는 ㄴ 받침 뒤
그 밖의 받침 뒤 률	확률 · 법률	ㄴ 이외의 받침 뒤
결합 구조와 제외 대상	신여성 / 삼 년 / 라디오	신-+여성 / 의존 명사 / 한자어가 아닌 말

'렬·률'의 조건을 다른 모든 'ㄹ' 소리에 확대하지 않는다.

규범-011 선택형

표기가 모두 바른 묶음은?

① 비률 · 백분율 · 확률
② 비율 · 백분율 · 확률
③ 비율 · 백분률 · 확률
④ 비율 · 백분율 · 확율
⑤ 비률 · 백분률 · 확율

규범-012 서답형

'백분율'과 '법률'의 표기가 다른 이유를 '률' 앞 음절의 받침으로 설명하시오.

답: _____

근거·설명: _____

규범-013 선택형

두음 법칙을 적용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라디오’는 첫소리가 ㄹ이므로 ‘나디오’로 적는다.
② ‘남녀’는 첫머리가 아니므로 ‘남여’로 적는다.
③ ‘노동’은 본래 한자음의 ㄹ을 살려 ‘로동’으로 적는다.
④ ‘삼 년’의 ‘년’은 의존 명사이므로 ‘연’으로 바꾸지 않는다.
⑤ ‘역사’는 형태를 밝히기 위해 ‘력사’로 적는다.

규범-014 서답형

‘신여성’을 ‘신녀성’으로 고치면 안 되는 까닭을 말의 짜임으로 설명하시오.

답: _____

근거·설명: _____

_____

규범-015 선택형

판단과 근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나열: ‘렬’이 모음 뒤에 있으므로 ‘열’로 적는다.
② 근로: 모든 단어 끝의 ‘로’를 ‘노’로 바꾼다.
③ 경력: ‘ㅇ’ 받침 뒤이므로 ‘력’을 ‘역’으로 바꾼다.
④ 여자: ‘녀’는 어느 위치에서든 ‘여’로 적는다.
⑤ 백분율: 한자어는 언제나 ‘율’로 적는다.

A4 원형을 밝힌다면 ‘듣어’라고 써야 할까?

개념ID: 문법09-04

짧은 답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 기본이지만 불규칙하게 바뀐 형태는 규칙에 따라 적는다.**

정의

용언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활용한다. 맞춤법은 이들의 관계를 드러내되, 불규칙 활용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기도 한다.

Q (가) 활용: 어간 + 어미

짜임	표기	판단
먹- + -어	먹어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구별하여 적음
듣- + -어	들어	ㄷ 불규칙 활용의 변화를 적음
돕- + -아	도와	ㅂ 불규칙 활용의 변화를 적음
파랗- + -아	파래	ㅎ 불규칙 활용의 변화를 적음

Q (나) 파생: 어근 + 접미사

붙는 접미사	적는 법	예
‘-이’, ‘-음’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음	깊이, 웃음, 먹이
그 밖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애, -암, -엄 등)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음	마개(막-+-애), 마감(막-+-암), 무덤(묻-+-엄)

위 표는 용언 어근에 접미사가 붙어 명사·부사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원래 뜻과 멀어진 말 등 별도로 정한 예외는 사전에서 확인한다.

Q 왜 ‘먹어’와 ‘들어’의 적는 방식이 다를까?

‘먹다’는 ‘먹-’을 유지하여 활용하지만, ‘듣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ㄷ’이 ‘ㄹ’로 바뀐다. ‘들어’는 원형을 몰라 잘못 적은 말이 아니라 불규칙 활용을 바르게 반영한 표기이다.

Q ‘마개’는 왜 ‘막애’가 아닐까?

‘깊이·웃음’은 ‘-이·-음’이 붙어 원형을 밝혀 적는다. ‘마개’는 ‘막-’에 다른 모음 접미사 ‘-애’가 붙어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접미사의 종류를 구별해야 한다.

비유와 한계

원형은 출발점이고 활용형은 정해진 길을 따라 도착한 모습과 비슷하다. 출발점만 고집하면 실제 도착 형태를 잘못 적는다. 그렇다고 발음이 달라질 때마다 표기를 바꾸라는 뜻은 아니다.

형태를 밝힘과 불규칙 활용

출발점의 어간을 보되, 규칙에 따라 바뀐 모습은 반영한다.

먹- + -어

↓

먹어

어간 먹-을 드러냄

듣- + -어

↓

들어

ㄷ이 ㄹ로 바뀜

돕- + -아

↓

도와

ㅂ이 ‘오’로 바뀜

파랗- + -아

↓

파래

ㅎ 불규칙 활용

파생의 대표 규칙: -이·-음 → 원형 밝힘 / 그 밖의 모음 접미사 → 밝히지 않음
깊이 · 웃음 ↔ 마개(막- + -애)

규범-016 서답형

‘듣다’에 ‘-어’가 결합할 때의 표기를 쓰고, ‘들어’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시오.

답: _____

근거·설명: _____

_____

규범-017 선택형

표기가 모두 바른 묶음은?

① 먹어 · 듣어 · 도와 · 파래
② 먹어 · 들어 · 돕아 · 파래
③ 먹어 · 들어 · 도와 · 파랗아
④ 머거 · 들어 · 도와 · 파래
⑤ 먹어 · 들어 · 도와 · 파래

규범-018 서답형

‘파생어는 모두 어근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는 생각이 왜 틀렸는지 ‘깊이·웃음’과 ‘마개’를 비교하여 쓰시오.

답: _____

근거·설명: _____

_____

규범-019 선택형

‘들어’의 표기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기본형은 ‘듣다’이다.)

① 어간의 원형을 모르는 사람이 쓴 잘못된 표기이다.
② ‘듣어’와 뜻이 같으므로 두 표기가 모두 허용된다.
③ 불규칙 활용으로 달라진 어간의 모습을 반영한 표기이다.
④ 조사 ‘어’를 앞말에 붙인 것이다.
⑤ 형태를 밝히는 원리가 맞춤법에 전혀 없다는 증거이다.

규범-020 서답형

다음 세 표기를 모두 고치고 각 말의 기본형을 쓰시오.

듣어 / 돕아 / 파랗아

듣어 → 표기: _____

기본형: _____

돕아 → 표기: _____

기본형: _____

파랗아 → 표기: _____

기본형: _____

B 헷갈리는 표기 가르기

B1 된소리가 나면 사이시옷도 넣을까?

개념ID: 문법09-05

짧은 답 **합성어의 짜임, 말의 종류, 앞말의 끝, 소리 조건을 모두 보아야 한다.**

정의

사이시옷은 일정한 합성어에서 앞말의 받침으로 적는 'ㅅ'이다. 합성 과정에서 소리가 달라지는 사잇소리 현상과 그 소리를 표기에 반영하는 사이시옷은 구별한다.

Q 사이시옷의 문턱은 무엇일까?

① 합성어이고 ② 고유어끼리 또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하며 ③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④ 아래 소리 조건 중 하나를 갖추는지 확인한다. 외래어가 포함된 합성어나 파생어까지 이 규칙을 넓히지 않는다.

소리 조건	예	발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남	나뭇가지	[나무까지]가 원칙, [나묻까지]도 허용
뒷말의 ㄴ·ㅁ 앞에 ㄴ 소리가 덧남	콧날	[콘날]
뒷말의 모음 앞에 ㄴㄴ 소리가 덧남	나뭇잎	[나문닙]

무엇을 할 때	출발점	과정
적을 때(사이시옷을 넣을지 정함)	코 + 날	두 말이 합쳐질 때 [ㄴ] 소리가 덧남 → 사이시옷을 받쳐 '콧날'
읽을 때(발음을 정함)	콧날	받침 ㅅ → [ㄷ] (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ㄴ] (비음화) → [콘날]

두 설명은 출발점이 달라서 과정이 다르게 보일 뿐, 둘 다 맞다.

Q '길가'는 [길까]인데 왜 '길ㅅ가'가 아닐까?

앞말 '길'이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사잇소리 현상이 있어도 사이시옷 표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손등[손뜽]'도 같은 비교에 쓸 수 있다.

Q 한자어끼리도 사이시옷을 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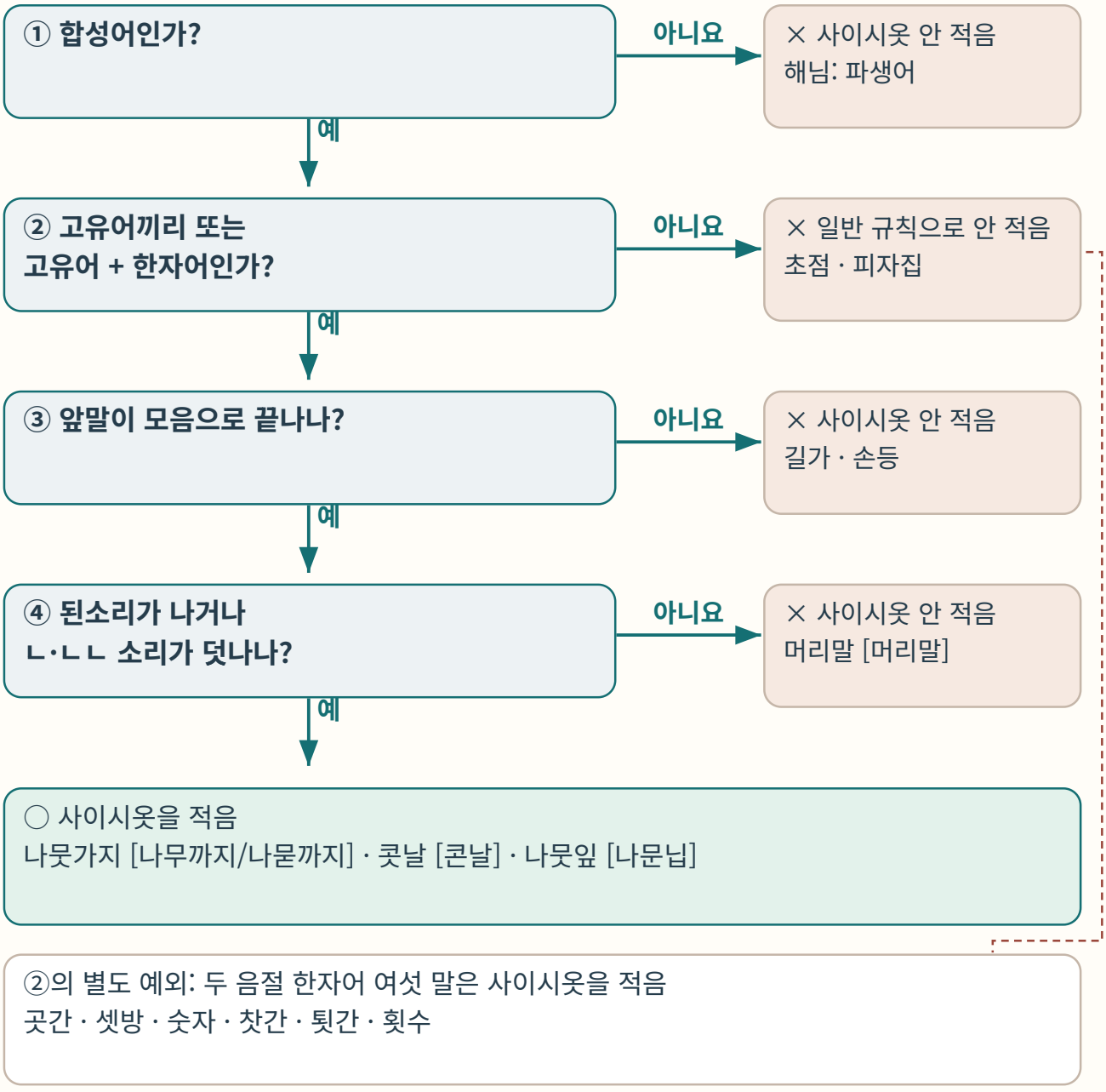
두 음절 한자어 여섯 말은 예외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곳간·셋방·숫자·찻간·툇간·횟수**이다. 이를 모든 한자어에 확대하지 않으며, '초점'을 '촛점'으로 쓰지 않는다.

비유와 한계

사이시옷 표기는 입장 조건을 여러 개 확인하는 일과 비슷하다. '된소리'라는 표 하나만으로는 입장이 결정되지 않는다. 다만 여섯 한자어처럼 별도로 정한 예외도 있으므로 일반 조건표만으로 모든 낱말을 판단할 수는 없다.

사이시옷의 네 조건

일반 조건을 차례로 확인하고, 여섯 한자어 예외를 따로 본다.



규범-021 선택형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된소리로 읽는 모든 합성어에는 사이시옷을 적는다.
② ‘초점’은 된소리가 나므로 ‘촛점’으로 적는다.
③ ‘나뭇잎’의 표준 발음은 [나무십]이다.
④ 외래어가 포함된 합성어에는 언제나 사이시옷을 적는다.
⑤ ‘길가’는 [길까]로 읽어도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규범-022 서답형

‘나뭇가지’와 ‘길가’를 비교하여 앞말의 끝이 사이시옷 표기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쓰시오.

답: _____

근거·설명: _____

_____

규범-023 선택형

사이시옷을 적는 두 음절 한자어 예외만으로 묶인 것은?

① 곳간 · 숫자 · 횟수
② 곳간 · 초점 · 횟수
③ 숫자 · 초점 · 나뭇잎
④ 콧날 · 셋방 · 찻간
⑤ 길가 · 손등 · 툇간

규범-024 서답형

(1) ‘콧날’의 표준 발음을 쓰시오.

(2) ‘코+날’을 ‘콧날’로 적는 까닭을 덧나는 소리와 관련지어 쓰시오.

(3) 이미 적힌 ‘콧날’을 읽을 때 받침 ㅅ이 어떤 과정을 거쳐 [ㄴ]이 되는지 쓰시오.

(1) _____

(2) _____

(3) _____

규범-025 선택형

표기와 발음을 함께 바르게 판단한 것은?

① ‘나뭇가지’는 [나뭇까지]로만 발음한다.
② ‘손등’은 [손뜽]이므로 ‘솟등’으로 적는다.
③ ‘나뭇잎’은 [나문닙]으로 읽으므로 ‘나문닙’으로 적는다.
④ ‘나뭇가지’는 [나무까지]가 원칙이고 [나묻까지]도 허용된다.
⑤ ‘횟수’가 있으므로 모든 한자어에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다.

B2 ‘돼’는 언제 쓰고, 준말은 어떻게 적을까?

개념ID: 문법09-06

짧은 답 **‘돼’는 ‘되어’가 준 형태이다. 준말은 본말과의 관계를 확인하되 줄어드는 방식도 구별한다.**

정의

준말은 본말의 일부 소리나 음절이 줄어든 말이다. 준말을 쓸 때는 줄어든 모양 그대로 적는다(되어 → 돼).

본말의 짜임	본말	준말
되- + -어	되어	돼
되- + -었-	되었-	됐-
하- + -여	하여	해
보- + -아	보아	봐
주- + -어	주어	줘
가지- + -어	가지어	가져
치- + -어	치어	쳐
가지- + -고	가지고	갖고

되/돼 판별 — 두 가지 중 하나로 확인

① ‘되어’로 바꿔 말이 되면 ‘돼’, 안 되면 ‘되’(돼 → 되어 ○ / 되고 → 되어고 ×).

② ‘하/해’를 넣어 보기: ‘해’가 어울리면 ‘돼’, ‘하’가 어울리면 ‘되’(해도 → 돼도 / 하고 → 되고).

Q ‘잘돼’와 ‘되고’는 왜 다를까?

‘잘돼’는 ‘잘되어’로 풀 수 있다. ‘되고’는 ‘되-+-고’이며 ‘되어고’가 아니므로 ‘돼고’로 쓰지 않는다. ‘돼’를 무조건 ‘되’의 강조형으로 생각하면 틀린다.

Q ‘가져’를 [가저]로 읽으면 ‘가저’로 쓸까?

아니다. 활용형 ‘져·쪄·쳐’는 [저·쩌·처]로 발음하지만 ‘가져·쪄·쳐’로 적는다. 앞의 「음운편」에서는 ‘보아 → 봐’를 ‘ㅗ’가 반모음으로 바뀌는 **교체(반모음화)**로 배웠다. 맞춤법에서 말하는 ‘준말’은 ‘짧아진 말’이라는 뜻일 뿐, 음운 변동의 종류인 축약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Q ‘생각하건대’와 ‘간편하게’는 같은 방식으로 줄까?

‘하’ 앞 받침의 소리	줄어드는 방식	예
[ㄱ·ㄷ·ㅂ]	‘하’ 전체가 빠짐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 깨끗하지 → 깨끗지, 섭섭하지 → 섭섭지
모음, [ㄴ·ㄹ·ㅁ·ㅇ]	‘ㅏ’만 빠지고 남은 ㅎ이 뒤 자음과 합쳐짐	간편하게 → 간편케, 다정하다 → 다정타, 연구하도록 → 연구토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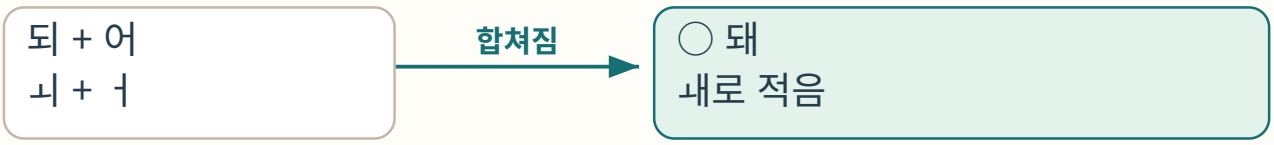
‘하’ 전체가 줄어드는 경우를 구별할 때에는 앞말의 받침 **소리**가 [ㄱ·ㄷ·ㅂ]인지 본다. ‘생각컨대’는 바른 준말이 아니다. 본말 자체를 반드시 준말로 바꾸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비유와 한계**
>
> 준말은 길게 접힌 지도를 작게 접어 놓은 모습과 비슷하다. 펼쳤을 때 어떤 본말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무 부분이나 잘라 내어 새 준말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어디가 줄고, 무엇이 합쳐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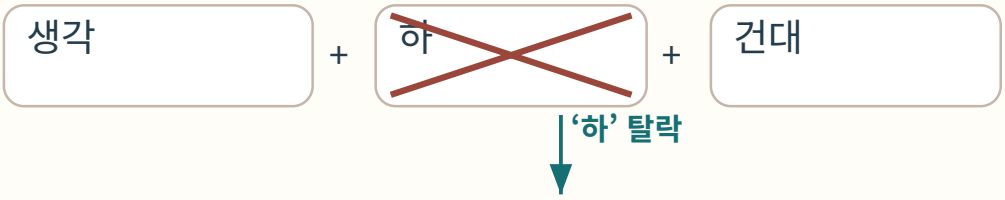
준말의 결과만 외우지 말고 없어지거나 합쳐지는 자리를 본다.

① ‘어’가 있어야 ‘돼’로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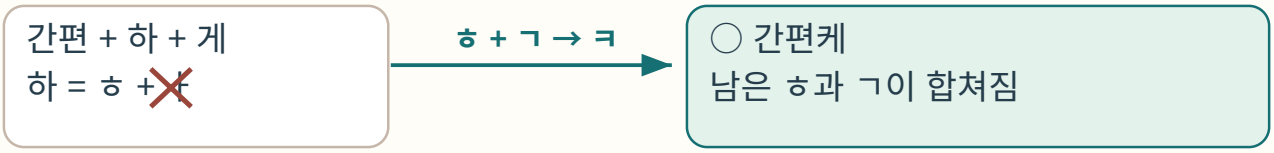
되 + 고 → 되고 | 합칠 ‘어’가 없음 → 돼고 ×

② ‘하’ 전체가 빠짐



◯ 생각건대 | 생각컨대 ×

③ ‘ㅏ’만 빠짐 → 남은 ㅎ이 ㄱ과 합쳐짐



[ㄱ·ㄷ·ㅂ] 소리 뒤: ‘하’ 탈락 / 모음·[ㄴ·ㄹ·ㅁ·ㅇ] 뒤: ㅎ 결합

규범-026 서답형

괄호 안에서 ‘되/돼’를 골라 완성하고, ②에서 고른 말의 본말을 쓰시오.

① 준비가 잘 (되/돼)고 있다.
② 이제 시작해도 (되/돼).

① _____

② _____

②에서 고른 말의 본말: _____

규범-027 선택형

본말과 준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되고 → 돼고
② 생각하건대 → 생각컨대
③ 되었다 → 됐다
④ 간편하게 → 간편게
⑤ 가져 → 가저

규범-028 서답형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와 ‘간편하게 → 간편케’에서 ‘하’가 줄어드는 방식을 각각 설명하시오.

생각하건대가 줄어드는 방식: _____

간편하게가 줄어드는 방식: _____

규범-029 선택형

준말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돼’는 ‘되고’에서 ‘고’가 생략된 형태이다.
② ‘가져’는 [가저]로 발음해도 ‘가져’로 적는다.
③ ‘하여’의 준말은 ‘하’이다.
④ 준말이 있으면 본말은 틀린 표기가 된다.
⑤ ‘가지고’의 준말은 ‘갖이고’이다.

규범-030 서답형

다음 본말을 각각 준말로 쓰시오.

하여 / 보아 / 주어 / 치어 / 가지고

하여 → _____

보아 → _____

주어 → _____

치어 → _____

가지고 → _____

B3 ‘안·않’, ‘-던·-든’, ‘로서·로써’는 무엇으로 가를까?

개념ID: 문법09-07

짧은 답 **부정의 구조, 과거의 회상인지 선택인지, 자격인지 수단인지를 구별한다.**

정의

문맥으로 가르는 표기는 비슷하게 들리는 표현을 문장 속의 뜻과 문법적 기능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다.

표현	뜻·기능	예	확인법
안	‘아니’의 준말인 부사	안 간다	‘아니’를 넣어 말이 되면(아니 간다 ○)
않-	‘아니하-’의 준말인 어간	가지 않는다	‘아니하-’를 넣어 말이 되면(가지 아니한다 ○)
-던	과거를 돌아봄	어제 읽던 책	지난 일을 떠올리는 뜻이면
-든(지)	무엇을 골라도 상관없음	가든지 말든지	‘-든지’로 늘여도 뜻이 같으면
(으)로서	지위·자격	대표로서	‘~의 자격으로’로 바꿀 수 있으면
(으)로써	수단·도구	대화로써	‘~을 가지고/~을 써서’로 바꿀 수 있으면

Q ‘안 가다’와 ‘가지 않다’는 모두 부정인데 왜 다를까?

‘안’은 뒤의 용언을 꾸미는 부사이고, ‘않-’은 어미를 붙여 활용하는 용언의 어간이다. ‘않는다·않았다’처럼 어미가 붙을 자리에 ‘안’을 놓을 수 없다.

Q 과거의 일에는 모두 ‘-던’을 쓸까?

과거를 회상하는 ‘어제 읽던 책’은 ‘-던’을 쓴다. 그러나 ‘어제 나는 “가든지 말든지 네가 정해.”라고 말했다.’에서 인용된 말의 핵심은 선택이므로 ‘-든지’를 쓴다. 사건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 표현이 맡는 의미를 본다.

Q 사람이면 ‘로서’, 물건이면 ‘로써’일까?

판단 기준은 사람·물건 자체가 아니라 문장에서 맡는 자격·수단의 뜻이다. ‘이 상자는 의자로서 제 역할을 한다.’에서 상자는 물건이지만 ‘의자라는 자격·역할’을 말한다. ‘로써’는 ‘오늘로써 사흘째’처럼 시간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므로 수단만이 유일한 뜻은 아니다.

비유와 한계

비슷한 표기는 같은 모양의 열쇠와 비슷하다. 문맥이라는 자물쇠에 맞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말에는 하나의 확인법으로 가를 수 없는 쓰임도 있다. ‘오늘로써 사흘째’의 ‘로써’는 수단이 아니라 시간의 한계를 나타낸다. 확인용 말을 넣어 본 뒤 문장 전체의 뜻도 확인한다.

바꿔 넣어 확인하기

뜻에 맞는 확인용 말을 넣고, 원래 표기로 돌아온다.

나는 오늘 아니 간다 ◯ 아니 → 안	◯ 바른 표기 안 간다
가지 아니한다 ◯ 아니하- → 않-	◯ 바른 표기 가지 않는다
대표의 자격으로 말했다 ◯ 자격 → 로서	◯ 바른 표기 대표로서
대화를 써서 해결했다 ◯ 수단 → 로써	◯ 바른 표기 대화로써
어제 읽던 책: 지난 일 회상 ◯ 회상 → -던	◯ 바른 표기 읽던 책
어느 쪽을 고르든지 좋다 ◯ 선택 → -든	◯ 바른 표기 고르든

× ‘않 간다’ → ‘아니하-’를 부사처럼 놓을 수 없다. ‘안 간다’로 쓴다.

규범-031 선택형

문맥에 맞게 표기한 문장은?

① 나는 오늘 운동을 않 한다.
② 나는 오늘 운동을 하지 안는다.
③ 나는 오늘 운동을 하지 안았다.
④ 나는 오늘 운동을 하지 않는다.
⑤ 나는 오늘 운동을 않하고 쉬었다.

규범-032 서답형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고른 말이 나타내는 뜻(지난 일을 돌아봄/무엇을 골라도 상관없음)을 각각 쓰시오.

① 어제 읽(던/든) 책을 마저 읽었다.
② 버스를 타(던/든) 걸어가(던/든) 네가 정해.

① 고른 말: _____

뜻: _____

② 고른 말: _____

뜻: _____

규범-033 선택형

'그는 반 대표로서,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했다.'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두 표현은 모두 장소를 나타낸다.
② '대표로써'와 '대화로서'로 반드시 고쳐야 한다.
③ '대표로서'는 자격, '대화로써'는 수단을 나타낸다.
④ 앞말이 사람이면 어느 문장에서나 '로서'만 쓴다.
⑤ '대화'는 추상적 대상이므로 '로써'를 쓸 수 없다.

규범-034 서답형

"상자는 물건이니까 '의자로써 제 역할을 한다'라고 써야 해."라는 말을 고치고 이유를 쓰시오.

답: _____

근거·설명: _____

_____

규범-035 선택형

"지난주에 나는 '어느 쪽을 고르든 괜찮아.'라고 말했다."에서 '고르든'이 바른 이유는?

① 지난주라는 말 뒤에는 항상 -든을 쓰기 때문이다.
② '괜찮아'가 뒤에 오면 -던은 언제나 틀리기 때문이다.
③ -던과 -든은 표준어에서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④ 고르다는 과거형을 만들 수 없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⑤ 지난주의 말이어도 인용된 표현은 선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B4 뜻과 형태에 맞는 말은 어떻게 고를까?

개념ID: 문법09-07

짧은 답 **의미와 문법적 기능을 보되, 부사의 '-이·-히'처럼 정해진 표기도 확인해야 한다.**

정의

비슷하게 들리거나 흔히 바꾸어 쓰는 말도 뜻과 문법적 자리가 다르면 서로 바꿀 수 없다.

구별	기준	예
다르다 / 틀리다	같지 않음 / 바르지 않음	취향이 다르다. / 계산이 틀리다.
-오 / 요	종결 어미 / 듣는 사람을 높이는 뜻을 더하는 보조사	이쪽으로 오시오. / 저도요.
부사의 -이 / -히	어근의 형태(아래 표)	깨끗이, 틈틈이 / 조용히, 정확히

Q 의견이 다르면 틀린 것일까?

'다르다'는 둘이 같지 않다는 말이다. '틀리다'는 기준이나 사실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좋아하는 색이 다른 것만으로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틀리다'를 쓸 수 있다.

Q '오시오'와 '저도요'의 끝은 같을까?

'오시오'의 '-오'는 문장을 끝맺는 어미이다. '저도요'의 '요'는 듣는 사람을 높이는 뜻을 더하는 보조사이다. 소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오시요·저도오'로 바꾸지 않는다.

Q '-하다'를 붙일 수 있으면 모두 '-히'일까?

다음은 '-이/-히'를 가르는 대표적인 형태상의 기준이다. 모든 낱말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다.

'-이'로 적는 경우	예	'-히'로 적는 경우	예
'-하다'가 붙는 말이라도 어근이 'ㅅ' 받침으로 끝날 때	깨끗이, 따뜻이, 느긋이	'-하다'가 붙는 어근 뒤(ㅅ 받침 제외)	조용히, 정확히, 솔직히, 꼼꼼히
'-하다'가 붙지 않는 말 뒤	같이, 많이, 굳이		
같은 명사가 겹친 뒤	틈틈이, 집집이, 곳곳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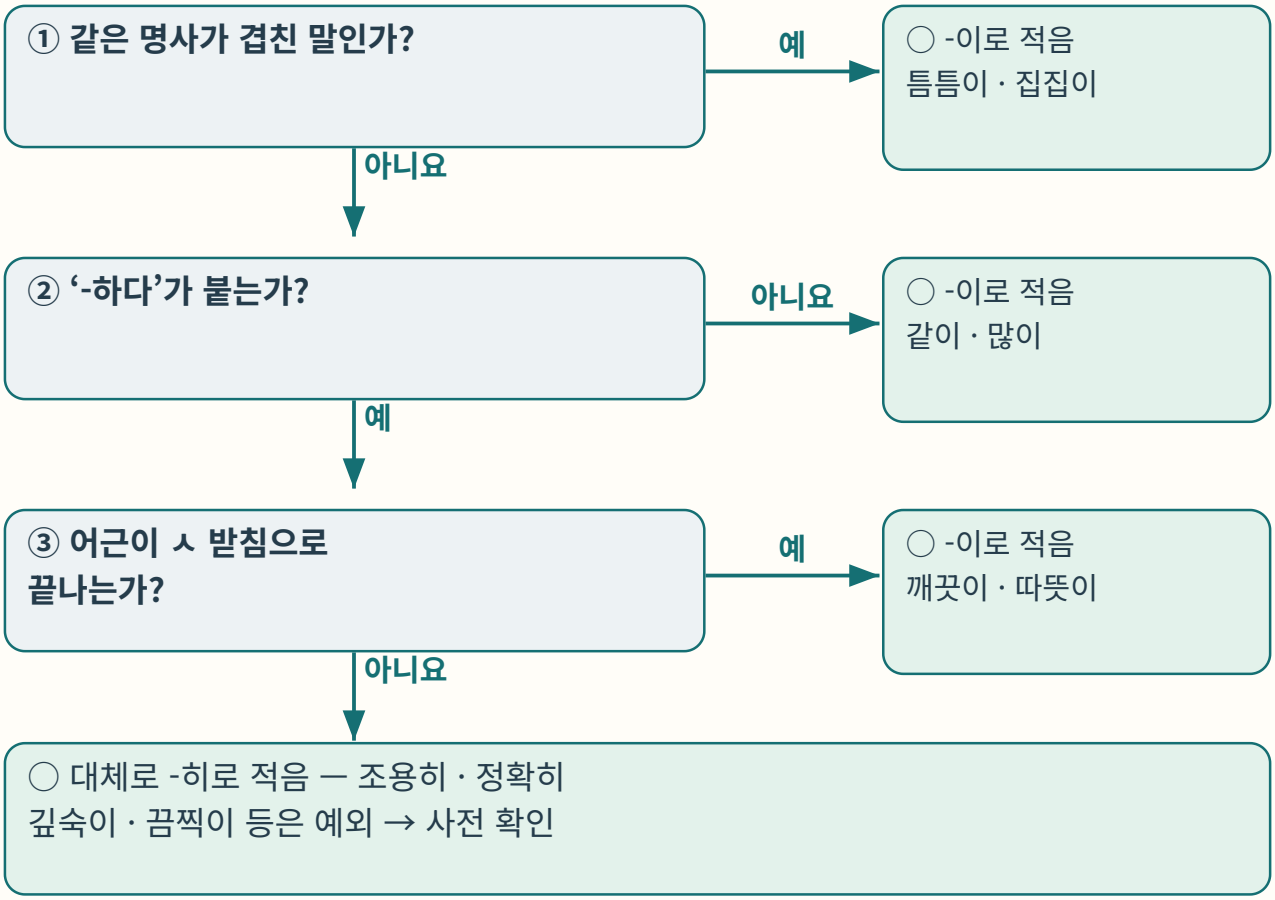
예외도 있으니(깊숙이, 끔찍이 등) 헷갈리면 사전에서 확인한다. 개인의 발음 습관만으로 표기를 정하지 않는다.

비유와 한계

뜻이 다른 말은 같은 서랍에 들어 있어도 쓰임이 다른 도구와 비슷하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도구는 모양이 다르지만, 말은 소리가 비슷해도 하는 일이 다르다. 겉모양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하는 일을 본다.

부사의 -이/-히를 가르는 기준

대표적인 형태 기준이다. 예외까지 모두 가르는 공식은 아니다.



다른 구별: '-오'는 종결 어미, '요'는 듣는 사람을 높이는 보조사.

규범-036 서답형

'우리는 좋아하는 색이 틀리다.'를 두 사람의 취향이 같지 않다는 뜻에 맞게 고치고 이유를 쓰시오.

답: _____

근거·설명: _____

규범-037 선택형

표기와 기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오시요. — ‘요’가 이 문장의 올바른 종결 어미이다.
② 저도요. — ‘요’가 듣는 사람을 높이는 뜻을 더하는 보조사이다.
③ 저도오. — ‘오’가 체언 뒤의 공손함을 나타낸다.
④ 오시오. — ‘오’가 ‘저도요’의 ‘요’와 같은 조사이다.
⑤ 오시오와 오시요는 모두 같은 문맥에서 허용된다.

규범-038 서답형

다음 말로 만든 부사를 쓰시오.

깨끗하다 → _____

조용하다 → _____

틈 + 틈 → _____

규범-039 선택형

“‘-하다’가 붙는 말은 부사를 만들 때 모두 ‘-히’로 적는다.”라는 설명의 반례는?

① 깨끗하다 — 깨끗이
② 조용하다 — 조용히
③ 정확하다 — 정확히
④ 분명하다 — 분명히
⑤ 솔직하다 — 솔직히

규범-040 서답형

아래 두 문장에 ‘다르다·틀리다’를 각각 알맞게 넣고 기준의 차이를 쓰시오.

① 둘의 취향이 ( ).
② 정답이 12인데 15라고 계산했으므로 답이 ( ).

① _____

② _____

판단 기준의 차이: _____

C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

C1 조사는 단어인데 왜 붙여 쓸까?

개념ID: 문법09-08

짧은 답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정의

띄어쓰기는 글에서 단어의 경계를 드러내는 규칙이다. 의존 명사도 단어이므로 띄어 쓰며, 조사는 단어이지만 앞말에 붙인다.

구분	조사	의존 명사
단어인가?	○	○
혼자 쓰일 수 있나?	×	×
품사	조사(관계언)	명사(체언)
띄어쓰기	앞말에 **붙임**	앞말과 **띄움**
이유	늘 앞말에 기대어 쓰이는 말이라서 단어여도 예외로 붙인다	혼자 못 쓰여도 명사이므로 다른 명사처럼 띄운다

구별	예	적는 법
조사	학교에서, 나에게도, 학교에서만	앞말에 붙이며 조사가 겹쳐도 붙임
의존 명사	할 수 있다, 아는 것	앞의 관형어와 띄움

Q 수와 단위, 열거하는 말

구별	표기	이유
단위 명사	두 개, 옷 한 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움
숫자와 결합한 단위	10 원 / 10원	띄는 것이 원칙, 붙이는 것도 허용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제일 과 / 제일과	붙여 쓰기도 허용
수를 한글로 적음	십이억 삼천만 사천	만 단위로 띄움
열거·연결	사과 및 배, 연필 등	및·등은 앞뒤 말과 띄어 씀

Q ‘의존’하면 붙여 쓰는 것 아닐까?

의존 명사는 홀로 쓰이기 어렵지만 명사라는 단어이다. ‘할’의 꾸밈을 받는 ‘수’와 ‘아는’의 꾸밈을 받는 ‘것’은 띄어 쓴다.

Q ‘학교에서만’에는 왜 공백이 없을까?

‘학교+에서+만’처럼 조사가 이어 붙은 구조이다. 조사가 여러 개라고 해서 ‘학교 에서 만’으로 나누지 않는다.

Q 단위는 붙여 써도 모두 맞을까?

‘두개·한벌’처럼 일반적인 한글 수 관형사 뒤에 단위를 무조건 붙이면 안 된다. ‘10원’은 숫자와 어울리는 경우의 허용이다. 허용 조건이 다른 예로 자동으로 옮겨 가지 않는다.

비유와 한계

띄어쓰기는 기차의 차량 경계를 표시하는 일과 비슷하고, 조사는 앞 차량에 붙는 연결 장치처럼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조사가 단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붙이는 경계, 띄우는 경계

조사는 앞말에 붙이고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조사

학교에서만

학교 + 에서 + 만
조사가 겹쳐도 붙임

의존 명사

할 수 있다

‘수’는 관형어 ‘할’ 뒤에서
띄어 쓰는 명사

단위 명사와 수

두 개 · 한 벌 / 10 원(원칙) · 10원(허용)

십이억 삼천만 사천

만 단위로 띄어 씀

‘10원’의 허용을 ‘두개·한벌’에 그대로 확대하지 않는다.

규범-041 선택형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① 나는 학교에서만 그 책을 읽을 수 있다.
② 나는 학교 에서만 그 책을 읽을 수 있다.
③ 나는 학교에서 만 그 책을 읽을 수 있다.
④ 나는 학교에서만 그 책을 읽을수 있다.
⑤ 나는 학교에서만 그책을 읽을 수 있다.

규범-042 서답형

‘조사는 단어이고 의존 명사는 혼자 쓰이기 어려우므로, 조사는 띄고 의존 명사는 붙여야 한다.’를 바로잡으시오.

답: _____

근거·설명: _____

_____

규범-043 선택형

원칙과 허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10원’이 허용되므로 ‘두개’도 언제나 허용된다.
② ‘한 벌’은 의존 명사이므로 반드시 ‘한벌’로 적는다.
③ ‘학교에서만’에는 조사가 두 개이므로 하나는 띄어야 한다.
④ ‘10 원’이 원칙이며 숫자와 어울린 ‘10원’도 허용된다.
⑤ ‘사과 및 배’에서 ‘및’은 앞말에 붙인다.

규범-044 서답형

다음 수를 만 단위 띄어쓰기에 맞게 고치시오.

십이억삼천만사천

답: _____

규범-045 선택형

‘학교에서만’의 구성과 띄어쓰기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① 학교에서 + 만: 만은 언제나 의존 명사이다.
② 학교 + 에서만: 에서만은 독립된 장소 명사이다.
③ 학교 + 에서 + 만: 조사가 이어 붙으므로 모두 붙여 쓴다.
④ 학교에서만: 띄어 쓰지 않았으므로 형태소는 하나이다.
⑤ 학교 + 에서 + 만: 단어 수만큼 반드시 띄어야 한다.

C2 같은 '뿐·대로·만큼·만·지'인데 왜 띄어쓰기가 다를까?

개념ID: 문법09-08

짧은 답 **글자 모양이 같아도 조사·의존 명사·어미 가운데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정의

같은 모양의 표현이 문장에서 다른 품사나 문법 요소로 쓰일 수 있다. 띄어쓰기는 그 자리의 기능을 반영한다.

판별 1단계 — '뿐·대로·만큼'의 앞말을 본다

앞말이 **체언**(명사·대명사 등) → 조사 → **붙임**: 너뿐, 계획대로, 나만큼.

앞말이 용언의 관형사형('-ㄴ/-은/-는/-ㄹ/-을/-던'으로 끝나는 관형어) → 의존 명사 → **띄움**: 웃을 뿐, 들은 대로, 노력한 만큼.

판별 2단계 — '만'과 '지'는 뜻을 본다

'만'이 시간이 지남을 뜻하면 체언 뒤라도 띄움: 사흘 만에(↔ 하루만: 한정).

'지'가 시간이 지남을 뜻하면 띄움: 떠난 지 오래다(↔ 갈지 모르겠다: 어미 '-ㄹ지').

붙여 쓰는 경우	기능	띄어 쓰는 경우	기능
너뿐이다	조사 뿐	웃을 뿐이다	의존 명사 뿐
계획대로	조사 대로	들은 대로	의존 명사 대로
나만큼	조사 만큼	노력한 만큼	의존 명사 만큼
하루만 쉬었다	한정의 조사 만	사흘 만에 만났다	시간이 흐른 뜻의 의존 명사 만
갈지 모르겠다	어미 -ㄹ지	떠난 지 오래다	시간이 지난 뜻의 의존 명사 지

Q '만'은 왜 앞말만 보고 정할 수 없을까?

'하루만'과 '사흘 만에'의 앞말은 모두 시간과 관련되지만 의미가 다르다. 전자는 '하루로 한정'하고 후자는 '사흘이 지난 뒤'를 뜻한다. '뿐·대로·만큼'은 앞말의 성격으로 가르지만, '만·지'는 시간이 지났다는 뜻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Q '할 뿐이다'에서 '이다'는 왜 붙일까?

'뿐'은 앞의 '할'과 띄지만, '이다'는 앞말에 붙는다. '할 뿐 이다'로 모든 경계를 띄우는 것은 바르지 않다.

Q '갈지'와 '간 지'의 차이는 무엇일까?

'갈지 모르겠다'는 갈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고, '간 지 한 달이다'는 간 뒤로 한 달이 흘렀다는 뜻이다. 단순히 '지'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띄우지 않는다.

비유와 한계

같은 '만'도 다른 역할의 이름표를 달 수 있다. 다만 주변 글자 한두 개만으로 역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문장 전체의 뜻을 확인한다.

띄어쓰기, 말마다 확인할 기준

'뿐·대로·만큼'은 앞말, '만·지'는 시간의 뜻을 확인한다.

1단계 · '뿐·대로·만큼'의 앞말이 체언인가?

- **예** → ◯ 조사 → 붙임
  너뿐 · 계획대로 · 나만큼
- **아니요: 용언의 관형사형** → ◯ 의존 명사 → 띄움
  웃을 뿐 · 들은 대로
  노력한 만큼

관형사형: 웃을·들은·노력한처럼 뒤 명사를 꾸미는 활용형

2단계 · '만·지'가 '시간이 지남'을 뜻하나?

- **예** → ◯ 의존 명사 → 띄움
  사흘 만에 · 떠난 지
- **아니요** → ◯ 조사·어미 → 붙임
  하루만(한정) · 갈지(어미)

규범-046 서답형

두 문장을 바르게 띄어 쓰고, 각 문장의 '만'이 조사인지 의존 명사인지 쓰시오.

① 하루 만 쉬었다. (쉬는 기간을 하루로 한정함)
② 사흘만에 다시 만났다. (사흘이 지난 뒤라는 뜻)

① 바른 문장: _____

만의 품사: _____

② 바른 문장: _____

만의 품사: _____

규범-047 선택형

띄어쓰기가 바른 문장은?

① 계획 대로 일을 마쳤다.
② 그 말을 들은 대로 전했다.
③ 이 일을 맡을 사람은 너 뿐이다.
④ 그저 웃을뿐이다.
⑤ 동생도 나 만큼 먹었다.

규범-048 서답형

다음 두 문장을 바르게 띄어 쓰고 '지'의 기능을 쓰시오.

① 그가 갈 지 모르겠다.
② 그가 떠난지 오래다.

① 바른 문장: _____

지의 기능: _____

② 바른 문장: _____

지의 기능: _____

규범-049 선택형

'할 뿐이다'의 띄어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의존 명사는 모두 앞말에 붙이므로 '할뿐이다'가 맞다.
② 문법 요소가 세 개이므로 '할 뿐 이다'가 맞다.
③ 뿐은 모든 문장에서 조사이므로 띄어 쓸 수 없다.
④ 이다는 모든 문장에서 독립된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⑤ '뿐'은 앞말과 띄고, '이다'는 '뿐'에 붙인다.

규범-050 서답형

'나는 노력한만큼 받았고, 동생은 나 만큼 받았다.'를 바르게 고치시오.

고친 문장: _____

C3 보조 용언은 붙여 써도 모두 맞을까?

개념ID: 문법09-09

짧은 답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임이 허용되는 구성과 제한 조건이 따로 있다.**

정의

보조 용언 앞에서 문장의 중심 뜻을 나타내는 용언을 **본용언**이라고 한다(읽어 보다 → '읽다'가 본용언). 보조 용언은 앞 용언에 덧붙어 시도·완료·희망 등의 뜻을 더하는 용언이다. 단어이므로 띄어 쓰되 일부 구성은 붙여 쓰기도 허용한다.

붙임 허용을 판단하는 순서

① '-아/-어' 뒤의 보조 용언 또는 의존 명사 + '-하다/-싶다' 구성인가? (척하다·듯하다·만하다·법하다·성싶다)
아니요 → 띄어 쓰기만 바름: 먹고 싶다, 먹지 않다.
② 앞말에 조사가 붙었거나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나?
예 → 띄어 쓰기만 바름: 읽어도 보고, 아는 척도 한다.
③ 본용언이 합성어·파생어이고 활용형이 세 음절 이상인가?
예 → 띄어 쓰기만 바름: 덤벼들어 보아라.
아니요 → 붙여 써도 됨: 읽어 보다/읽어보다, 가르쳐 주다/가르쳐주다, 나가 버리다/나가버리다.

구성	원칙	허용·제한
-아/-어 뒤의 보조 용언	읽어 보다	읽어보다도 허용
의존 명사에 -하다 등이 붙은 보조 용언	아는 척하다	아는척하다도 허용
-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싶다는 허용하지 않음
앞말에 조사가 붙음	읽어도 보고	읽어도보고는 허용하지 않음
중간에 조사가 들어감	아는 척도 한다	아는척도한다는 허용하지 않음
본용언이 합성·파생 용언이고 활용형이 세 음절 이상	덤벼들어 보아라	덤벼들어보아라는 허용하지 않음
합성·파생 용언의 활용형이 두 음절	나가 버리다	나가버리다도 허용

Q 길이가 세 음절이면 언제나 붙일 수 없을까?

아니다. 합성·파생 용언인지도 함께 본다. 단일 용언 '가르치다'의 '가르쳐 주다'는 '가르쳐주다'도 허용된다. '덤벼들어'의 제한을 모든 세 음절 활용형에 적용하면 안 된다.

Q '아는 척하다'와 '아는 척도 한다'는 왜 다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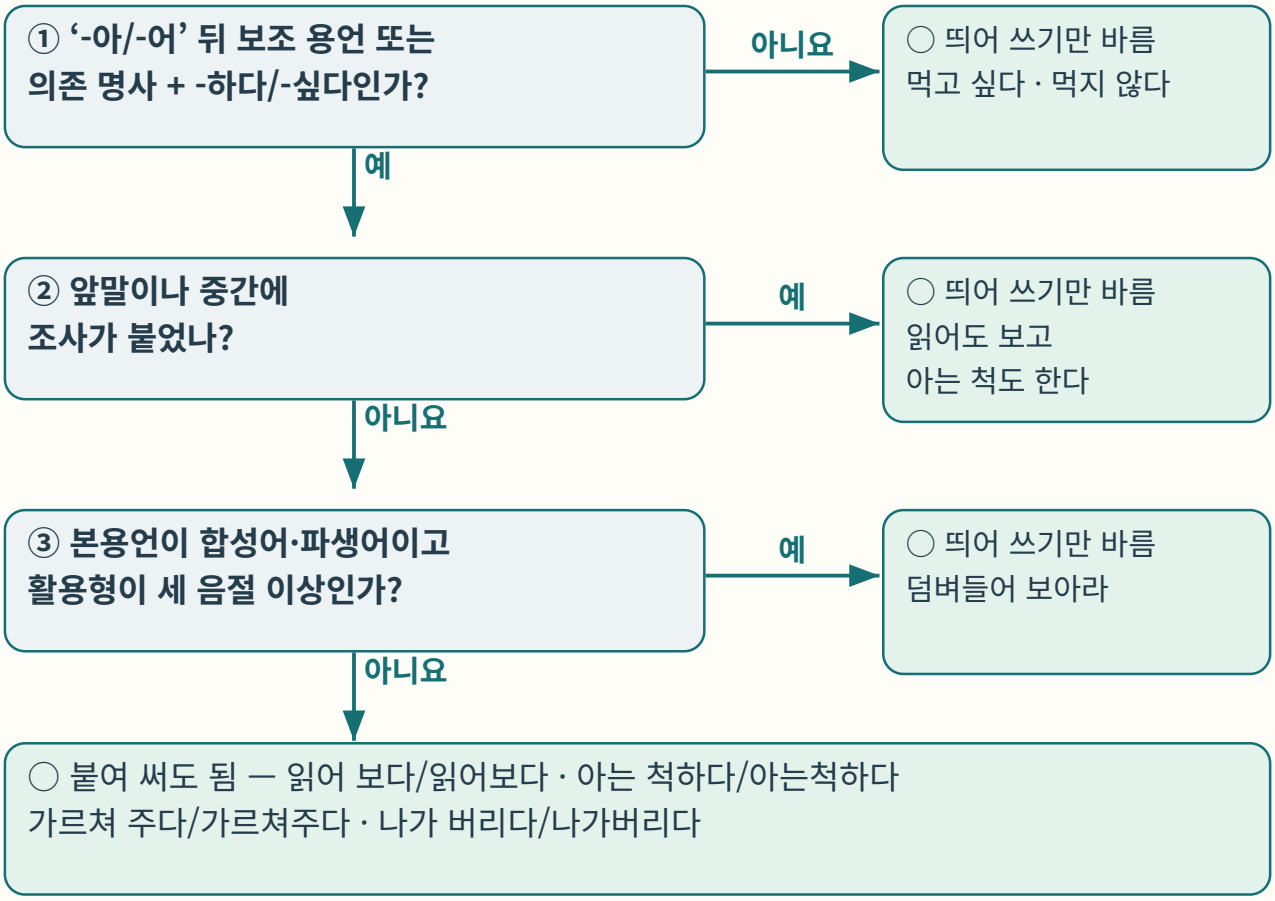
첫째는 보조 용언 '척하다'가 이어지는 구성이고, 둘째는 '척' 뒤에 조사 '도'가 들어간 구성이다. 중간의 조사가 붙임 허용을 제한하므로 '아는 척도 한다'로 적는다.

비유와 한계

붙임 허용은 조건에 맞을 때만 쓸 수 있는 통행권과 비슷하다. 앞의 예에서 허용되었다고 뒤의 모든 예에도 통하지 않는다. 다만 '허용'은 틀린 표기를 눈감아 준다는 뜻이 아니라 규범상 바른 표기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보조 용언, 붙여 써도 될까?

띄어 쓰기가 원칙이다. 붙임을 허용하는 조건만 차례로 확인한다.



①의 예: 척하다 · 듯하다 · 만하다 · 법하다 · 성싶다.
③은 '복합어'와 '활용형 세 음절 이상' 두 조건을 함께 본다.

규범-051 선택형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보조 용언은 모두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② ‘먹고 싶다’는 ‘먹고싶다’도 허용된다.
③ ‘읽어 보다’가 원칙이고 ‘읽어보다’도 허용된다.
④ ‘읽어도 보고’는 ‘읽어도보고’로만 써야 한다.
⑤ ‘아는 척도 한다’는 아무 경계나 붙여도 된다.

규범-052 서답형

다음을 원칙에 따라 띄어 쓰고, 붙임이 허용되지 않는 한 가지를 고르시오.

읽어보다 / 먹고싶다 / 아는척하다

원칙에 맞춘 세 표현: _____

붙임이 허용되지 않는 표현: _____

규범-053 선택형

붙여 쓰기가 허용되는 것은?

① 덤벼들어보아라
② 나가버리다
③ 읽어도보고
④ 아는척도한다
⑤ 먹고싶다

규범-054 서답형

‘가르쳐주다’가 허용되는데 ‘덤벼들어보아라’는 허용되지 않는 까닭을 쓰시오.

답: _____

근거·설명: _____

_____

규범-055 선택형

‘아는 척하다 → 아는 척도 한다’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도는 명사이므로 앞말과도 반드시 띄어 쓴다.
② ‘아는척하다’가 허용되므로 ‘아는척도한다’도 허용된다.
③ 조사가 들어가면 모든 말을 한 덩어리로 적는다.
④ ‘척도’는 이 문장에서 길이를 재는 명사이다.
⑤ 중간에 조사 ‘도’가 들어가므로 뒤의 ‘한다’를 띄어 쓴다.

C4 문장 부호는 숨 쉬는 곳에만 찍을까?

개념ID: 문법09-10

짧은 답 **문장 부호는 문장의 구조, 의도, 인용 범위 등을 드러낸다.**

정의

문장 부호는 문장의 끝과 내부 관계, 인용과 보충 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기호이다. 실제 말의 쉼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부호	이 묶음에서 다루는 기능	예
마침표	서술·명령·청유 등의 문장 끝	창문을 닫아라.
물음표	직접 묻는 문장 끝	지금 몇 시니?
쉼표	부르는 말 뒤, 나열하는 말 사이 등	친구야, 같이 가자. / 사과, 배, 감
큰따옴표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	그는 “내일 만나자.”라고 말했다.
작은따옴표	인용 안의 인용 등	“그가 ‘괜찮아.’라고 했어.”
소괄호	보충 설명 등	토요일(휴관일 제외)에 모인다.

Q 명령문 끝에는 꼭 느낌표를 쓸까?

보통의 명령문에도 마침표를 쓴다. 강한 느낌을 드러낼 때 느낌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명령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느낌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

Q 물음의 내용이 있으면 언제나 물음표일까?

‘언제 오는지 물었다.’는 물음의 내용을 전하는 서술문이므로 끝에 마침표를 쓴다. ‘언제 오니?’라는 직접 질문과 구별한다.

Q 부호 하나가 문장 이해에 도움을 줄까?

‘친구야, 같이 가자.’의 쉼표는 상대를 부르는 말을 뒤 문장과 구분한다. 실제로 길게 쉬지 않아도 구조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인용 부호도 누가 실제로 한 말의 범위인지를 표시한다.

비유와 한계

문장 부호는 길의 표지판과 비슷하다. 어디서 끝나고 어떤 관계로 이어지는지 알려 준다. 다만 쉼표 하나가 어휘와 문장 구조의 모든 모호함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문장 부호는 관계를 보여 준다

숨의 길이만으로 부호를 결정하지 않는다.

부르는 말

친구야, 같이 가자.

쉼표: 부르는 말과 뒤 문장을 구분

직접 인용

그는 “내일 만나자.”라고 말했다.

큰따옴표: 실제로 한 말의 범위

문장 전체의 기능

언제 오는지 물었다.

물음의 내용을 전하는 서술문 → 마침표

명령문도 “창문을 닫아라.”처럼 마침표로 끝낼 수 있다.

규범-056 서답형

‘친구야 같이 가자.’에서 부르는 말을 분명하게 구별하도록 문장 부호를 넣고 기능을 쓰시오.

답: _____

근거·설명: _____

_____

규범-057 선택형

문장 부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명령문 끝에는 언제나 느낌표만 써야 한다.
② ‘언제 오는지 물었다.’는 반드시 물음표로 끝내야 한다.
③ 쉼표는 말할 때 오래 쉬는 곳에만 쓴다.
④ ‘창문을 닫아라.’처럼 명령문 끝에 마침표를 쓸 수 있다.
⑤ 직접 인용한 말의 범위에는 따옴표를 쓸 수 없다.

규범-058 서답형

다음 문장에서 직접 인용한 말을 큰따옴표로 표시하시오. (인용한 말은 '내일 만나자.'이다.)

그는 내일 만나자.라고 말했다.

답: _____

규범-059 선택형

문장의 끝 부호가 문장 전체의 기능에 맞는 것은?

① 나는 그가 언제 오는지 물었다.
② 지금 몇 시니. (직접 시간을 묻는 뜻)
③ 그가 어디에 사는지 궁금하다? (사실을 서술하는 뜻)
④ 문을 닫아라? (보통의 명령이라는 뜻)
⑤ 오늘은 비가 온다? (날씨를 평범하게 알리는 뜻)

규범-060 서답형

다음 두 문장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각각 쓰고, 쉼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시오.

① 나는 울면서, 떠나는 친구를 배웅했다.
② 나는, 울면서 떠나는 친구를 배웅했다.

① _____ ② _____

근거·설명: _____

_____

D 표준 발음

D1 허용 발음은 틀려도 봐주는 발음일까?

개념ID: 문법09-11

짧은 답 **원칙 발음과 허용 발음은 모두 표준 발음이다. 비표준 발음과는 다르다.**

정의

표준 발음법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로 쓰이는 발음을 반영하되, 많이 쓴다고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원칙 발음을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발음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

구분	뜻	판단
원칙	규정이 기본으로 제시한 발음	표준 발음
허용	규정이 함께 인정한 다른 발음	표준 발음
비표준	해당 규정이 인정하지 않은 발음	표준 발음이 아님

Q '허용'은 덜 맞는 답일까?

'우리의'는 조사 '의'를 [의]로 읽는 [우리의]가 원칙이고, [우리에]도 허용된다. 둘 다 표준 발음이다. 다만 문항이 '원칙 발음'을 특정하면 원칙에 해당하는 답을 골라야 한다. '표준 발음'을 묻는 문제에서 허용 발음을 오답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Q 많이 들으면 허용 발음일까?

자주 들리는 발음인지와 규정에서 인정하는지는 별개이다. '의자'의 첫 음절 '의'를 [이]로 바꾼 [이자]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단어에서 [이]가 허용된다고 '의자'까지 확대하지 않는다.

Q 표준 발음과 표준 표기는 한 문제일까?

'우리의'를 [우리에]로 읽어도 표기는 '우리의'이다. 허용 발음은 표기까지 자유롭게 바꾸라는 허가가 아니다. 소리와 글자를 구분해야 한다.

비유와 한계

원칙과 허용은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정식 출입구와 비슷하다. 다만 '원칙 출입구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는 둘을 구분해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길을 사람들이 자주 이용한다고 정식 출입구가 되지는 않는다.

허용도 표준 발음이다

원칙을 묻는지, 표준 발음 전체를 묻는지 구별한다.



원칙 · 표준

[우리의]

조사 의를 [의]로 읽음

허용 · 표준

[우리에]

조사 의를 [에]로도 읽음

표기는 '우리의'를 유지한다.

'의자'를 [이자]로 읽는 것은 이 허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주 들린다는 사실만으로 표준 발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규범-061 선택형

표준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허용 발음은 시험에서 언제나 오답이다.
② 원칙 발음과 허용 발음은 모두 표준 발음이다.
③ 많은 사람이 쓰면 규정과 상관없이 표준 발음이다.
④ 허용 발음이 있으면 표기도 그 소리로 바꾸어야 한다.
⑤ 원칙과 허용은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규범-062 서답형

'우리의'의 원칙 발음과 허용 발음을 각각 쓰고, 두 발음의 표준 여부를 설명하시오.

원칙: _____

허용: _____

두 발음의 표준 여부: _____

규범-063 선택형

‘우리의’를 [우리에]로 읽은 경우에 대한 판단으로 알맞은 것은?

① 발음이 [에]이므로 소유 관계도 반드시 ‘우리에’로 적는다.
② 원칙 발음이 아니므로 비표준이다.
③ 이 발음이 허용되므로 ‘의자’도 [에자]로 읽는다.
④ ‘우리의’와 ‘우리에’는 모든 문장에서 같은 조사이다.
⑤ 발음은 허용되지만 표기는 ‘우리의’를 유지한다.

규범-064 서답형

‘민주주의의 의의’의 원칙 발음을 쓰고, 다음 조건에 맞는 허용 발음을 쓰시오. (장단은 표시하지 않는다.)

[조건] 허용 발음에는 ‘민주주의’의 끝 ‘의’, 조사 ‘의’, ‘의의’의 둘째 ‘의’에 인정되는 다른 발음을 세 곳 모두 적용할 것.

원칙: _____

조건에 맞는 허용: _____

규범-065 선택형

‘의자’를 [이자]로 읽는 것을 판단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첫 음절의 ‘의’이므로 여기서는 [이] 발음을 허용하지 않는다.
② ‘주의’가 [주이]로도 나므로 ‘의자’도 [이자]가 허용된다.
③ 자주 들리면 두 발음이 자동으로 모두 표준이 된다.
④ ‘의’는 어느 위치에서나 [이]로만 읽는다.
⑤ ‘의자’는 조사 의가 붙은 말이다.

D2 ‘–ㅢ’는 언제 [의], [이], [에]로 읽을까?

개념ID: 문법09-12

짧은 답 **표기된 초성, 음절의 위치, 조사인지 여부를 나누어 본다.**

정의

모음의 표준 발음에는 원칙과 조건별 예외·허용이 있다. 같은 글자가 모든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만 읽히는 것은 아니다.

조건	예	표준 발음
첫 음절의 ‘의’	의자	[의자]
자음이 첫소리로 적힌 음절의 –ㅢ	무늬, 희망	[무니], [히망]
첫 음절 이외의 ‘의’(앞 받침이 넘어와도 마찬가지)	주의, 협의	[주의/혀븨]가 원칙, [주이/혀비]도 허용
조사 ‘의’	우리의	[우리의]가 원칙, [우리에]도 허용

Q ‘협의’의 [븨]에도 자음이 있는데 왜 [혀븨]가 될까?

‘무늬’의 ‘늬’는 원래 자음 ‘ㄴ’이 초성으로 적혀 있다. ‘협의’의 ‘의’는 원래 초성 자음이 없는 음절이고, 앞 받침 ‘ㅂ’이 발음에서 넘어온 것이다. 따라서 ‘무늬’의 조건으로 단정하지 않고 첫 음절 이외의 ‘의’에 대한 원칙과 허용을 적용한다.

Q 다른 모음의 허용은 무엇이 있을까?

대상	규칙	예
ㅚ·ㅟ	단모음 발음이 원칙, 이중 모음 발음도 허용	외가 [외가/웨가], 금괴 [금괴/금궤]. ‘위’의 ㅟ도 단모음·이중 모음 모두 허용(한글 발음 표기는 같음)
예·례 이외의 ㅖ	[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	시계 [시계/시게]
활용형의 져·쪄·쳐	[저·쩌·처]로 발음	가져 [가저], 쪄 [쩌], 다쳐 [다처]

Q ‘예·례 이외’라는 조건은 왜 중요할까?

‘시계’의 [시게]를 보고 ‘예절’을 [에절]로 바꾸면 안 된다. ‘예·례’는 그 허용 규칙에서 제외한다. ‘혜택’은 [혜택/헤택]이 모두 가능하지만 표기는 ‘혜택’으로 유지한다.

비유와 한계

모음 글자는 갈림길에서 조건에 따라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다만 한 단어에서 길이 둘이라고 다른 모든 단어에도 같은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ㅢ’의 발음을 가르는 세 질문

글자에 적힌 초성과, 발음에서 넘어온 자음을 구별한다.

① 단어 첫 음절의 ‘의’인가? (초성 자음이 적혀 있지 않음)
- 예 → ○ [의]로 발음 — 의자 [의자]
- 아니요 ↓

② 초성 자음이 적힌 –ㅢ인가? (늬 · 희 · 띄 등)
- 예 → ○ [ㅣ]로 발음 — 무늬 [무니], 희망 [히망]
- 아니요 ↓

③ 조사 ‘의’인가?
- 예 → ○ [의] 원칙 · [에] 허용 — 우리의 [우리의/우리에]
- 아니요 ↓

○ 첫 음절 이외: [의] 원칙 · [이] 허용 — 주의 [주의/주이] · 협의 [혀븨/혀비]

협의: ㅂ은 발음에서 넘어온 것이지 ‘의’에 원래 적힌 초성이 아니다.

규범-066 서답형

‘무늬’와 ‘협의’의 표준 발음을 모두 쓰고, ‘협의’에 [혀븨]가 인정되는 까닭을 표기와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무늬: _____

협의: _____

협의에 [혀븨]가 인정되는 까닭: _____

규범-067 선택형

표준 발음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의자 — [이자]만
② 무늬 — [무늬]만
③ 가져 — [가저]
④ 예절 — [에절]만
⑤ 다쳐 — [다쪄]

규범-068 서답형

‘시계’의 표준 발음을 모두 쓰고, 이 허용을 ‘예절’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시계의 표준 발음: _____

예절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이유: _____

규범-069 선택형

모음의 표준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ㅚ와 ㅟ는 이중 모음으로 읽으면 언제나 비표준이다.
② 조사 의는 [이]로만 발음한다.
③ 희망은 [희망]으로만 읽는 것이 원칙이다.
④ ㅚ와 ㅟ는 단모음 발음이 원칙이고 이중 모음 발음도 허용된다.
⑤ 협의는 [혀비]만 표준이고 [혀븨]는 비표준이다.

규범-070 서답형

다음 말의 표준 발음을 쓰시오. 복수 발음이 인정되면 모두 쓰시오.

쪄 / 다쳐 / 주의 / 희망

쪄: _____

다쳐: _____

주의: _____

희망: _____

D3 소리의 길이는 글자 수나 목소리 높이일까?

개념ID: 문법09-13

짧은 답 **음의 길이는 한 소리를 내는 시간의 차이이다. 글자 수나 소리의 높낮이와 다르다.**

정의

장단은 소리를 길게 내는지 짧게 내는지의 차이이다. 표준 발음에서는 뜻을 구별하는 데 관여할 수 있으며 긴소리를 [:]로 표시한다.

표기	뜻	발음
눈	보는 기관	[눈]
눈	하늘에서 내리는 것	[눈:]
밤	해가 진 뒤의 시간	[밤]
밤	먹는 열매	[밤:]
말	타는 동물	[말]
말	생각을 전달하는 언어	[말:]

Q 길면 두 음절이 될까?

아니다. [눈:]는 [눈눈]이 아니고, '눈'에 글자를 하나 더 쓰는 것도 아니다. 한 음절 안의 소리를 더 길게 낸다는 뜻이다. 높은 목소리나 큰 목소리라는 뜻도 아니다.

Q 긴소리는 어디에 나타날까?

규칙	예
긴소리는 원칙적으로 단어의 첫 음절에서 남(둘째 음절 이하로 가면 짧아짐)	눈 [눈:] → 첫눈 [천눈], 말 [말:] → 참말 [참말]
예외: 합성어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긴소리를 인정	반신반의 [반:신바:늬/반:신바:니]
활용할 때 짧아지는 경우	감다(눈을 감다) [감:따] → 감으니 [가므니], 밟다 [밥:따] → 밟으면 [발브면]

활용에서 길이가 짧아지는 조건에도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활용형의 장단을 한 가지로 단정하지 않는다.

Q 실제로 구별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규칙도 사라질까?

현실의 발음 습관과 규정의 설명은 구별한다. 장단을 묻는 문항에서는 제시된 뜻과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강조하려고 일부러 늘인 소리 역시 낱말에 정해진 장단과 같지 않다.

비유와 한계

장단은 같은 건반을 누르는 시간의 차이와 비슷하다. 같은 건반을 **오래** 누르는 것이지, **더 높은 건반**을 누르거나 **더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실제 말은 문장 속에서 빠르기와 강조의 영향을 받으므로 음악의 박자처럼 기계적으로 같은 시간을 재는 것은 아니다.

길게 읽어도 한 음절

장단은 소리의 시간 차이이며 높낮이·세기·글자 수와 다르다.

눈

보는 기관 [눈]



내리는 눈 [눈ː]



밤

밤의 시간 [밤]



먹는 열매 [밤ː]



말

타는 동물 [말]



언어 [말ː]



둘째 음절로 가면 짧아짐: 눈 [눈ː] → 첫눈 [천눈]

눈 [눈ː]





첫눈의 '눈' [천눈]



막대는 길이 차이의 개념 표현이다. 긴소리가 정확히 두 배라는 뜻은 아니다.

규범-071 선택형

표기 '눈'과 발음 [눈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눈ː]는 반드시 [눈눈]처럼 두 번 읽는다.
② [ː]가 있으면 목소리를 반드시 높여야 한다.
③ 긴소리 표시는 맞춤법 표기에도 반드시 적는다.
④ 긴소리와 짧은소리는 언제나 뜻과 무관하다.
⑤ [ː]는 소리의 길이를 나타내며 글자나 음절을 하나 더하라는 뜻이 아니다.

규범-072 서답형

다음 뜻에 해당하는 '밤'의 발음을 장단을 표시하여 쓰시오.

① 해가 진 뒤의 시간
② 가을에 먹는 열매

① _____

② _____

규범-073 선택형

장단 규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① 긴소리는 모든 단어의 모든 음절에 자유롭게 넣는다.
② 기본형이 길면 모든 활용형도 반드시 길다.
③ 긴소리는 원칙적으로 첫 음절에 나타나지만 합성어 등에 예외가 있다.
④ 첫 음절 이외의 긴소리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⑤ 강조하려고 늘인 소리는 모두 사전에 정해진 긴소리이다.

규범-074 서답형

'말을 타고 갔다.'와 '친구의 말을 들었다.'에 쓰인 '말'의 발음을 뜻과 함께 구별하시오.

말을 타고 갔다: 뜻·발음 _____

친구의 말을 들었다: 뜻·발음 _____

규범-075 선택형

하늘에서 내리는 '눈 [눈:]'을 설명한 것 중 알맞은 것은?

① 긴소리이므로 맞춤법 표기를 '누운'으로 바꾼다.
② 짧은 [눈]보다 반드시 두 배 큰 소리로 읽는다.
③ 긴소리 표시가 있으므로 음절 수는 둘이다.
④ 표기는 '눈'으로 유지하고 발음에서 길이를 구별한다.
⑤ 강조해서 길게 읽을 때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뜻한다.

D4 받침 뒤 소리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

개념ID: 문법09-14

짧은 답 뒤에 오는 말의 성격과 음운 환경, 규정된 예외에 따라 달라진다.

정의

표준 발음의 적용은 받침, 동화, 된소리되기, 첨가 등의 조건을 실제 낱말과 문장에 맞추어 판단하는 것이다. 한 가지 소리 변화만으로 모든 예를 설명하지 않는다.

Q (가) 뒤에 모음이 올 때

비교	발음	갈리는 조건
옷이 / 옷 안	[오시] / [오단]	조사 앞에서는 연음,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대표음으로 바뀐 뒤 연음
굳이 / 견디다	[구지] / [견디다]	형식 형태소와의 결합 경계 / 한 형태소 내부
솜이불 / 송별연	[솜니불] / [송벼련]	ㄴ 첨가 적용 / 첨가하지 않는 예외

Q (나) 뒤에 자음이 올 때

비교	발음	갈리는 조건
읽다 / 읽고	[익따] / [일꼬]	용언 어간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하는 예외
감고 / 밤도	[감꼬] / [밤도]	ㄴ·ㅁ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 어미의 된소리 / 체언 뒤 조사
국물 / 신라	[궁물] / [실라]	ㄱ + ㅁ → [ㅇ] + ㅁ(비음화) / ㄴ + ㄹ → [ㄹ] + ㄹ(유음화)

이 묶음의 발음 표기는 비교 대상인 자음 변화에 초점을 맞추며, 별도로 묻지 않은 장단은 표시하지 않는다.

Q ‘옷이’와 ‘옷 안’은 왜 다를까?

‘옷이’의 ‘이’는 조사이므로 받침 ‘ㅅ’이 다음 음절로 넘어가 [오시]가 된다. ‘옷 안’의 ‘안’은 실질적인 뜻을 가진 말이므로 받침이 대표음 [ㄷ]으로 바뀐 뒤 넘어가 [오단]이 된다. 공백 유무만이 아니라 뒤 형태소의 성격을 보아야 한다.

Q ‘읽다’의 ㄺ은 항상 ㄱ으로 읽을까?

‘읽다’는 [익따]이지만 ‘읽고’는 용언 어간의 ‘ㄺ’ 뒤에 ‘ㄱ’이 와서 [일꼬]가 된다. ㄺ의 한 발음을 모든 활용형에 복사하지 않는다.

Q ‘굳이’는 [구지]인데 ‘견디다’는 왜 그대로일까?

‘굳-+-이’는 ‘ㄷ’ 뒤에 형식 형태소 ‘-이’가 결합한 경계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견디-’의 ‘ㄷ·ㅣ’는 한 형태소 내부에 있으므로 같은 조건이 아니다.

Q ‘솜이불’을 보고 모든 비슷한 말에 ㄴ을 넣어도 될까?

합성어·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야·여·요·유’로 시작하면 ㄴ 첨가를 살핀다. 그러나 ‘송별연’은 첨가하지 않는 예외로 [송벼련]이라 한다. 표면적으로 소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유와 한계

발음 규칙은 조건이 맞을 때 열리는 문과 비슷하다. 앞뒤 소리뿐 아니라 형태소 경계라는 열쇠가 필요하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문은 열쇠 하나로 열리지만, 발음은 앞뒤 소리와 형태소 경계를 둘 다 맞춰 봐야 하고, 송별연처럼 정해진 예외도 있다.

받침 뒤 소리의 두 갈래

뒤의 소리와 형태소의 성격을 함께 보아 발음 과정을 정한다.

(가) 뒤에 모음이 올 때

옷 + 이 (조사)
ㅅ이 그대로 다음 음절로 넘어감

↓

◯ [오시]

옷 + 안 (실질 형태소)
ㅅ → 대표음 [ㄷ]

[옫안] → 연음

↓

◯ [오단]

굳- + -이 → 구개음화 → [구지] / 견디- 안에서는 적용 안 함
솜 + 이불 → ㄴ 첨가 → [솜니불] / 송별연은 예외 → [송벼련]

(나) 뒤에 자음이 올 때

ㄺ + ㄷ → [ㄱ] + 된소리 → 읽다 [익따]
용언 어간의 ㄺ + ㄱ → [ㄹ] + 된소리 → 읽고 [일꼬]

용언 어간 감- + 어미 -고 → 된소리 → 감고 [감꼬]
체언 밤 + 조사 도 → 같은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 → [밤도]

국물: ㄱ + ㅁ → [ㅇ] + ㅁ → [궁물] (비음화)
신라: ㄴ + ㄹ → [ㄹ] + ㄹ → [실라] (유음화)

소리 조건이 비슷해도 형태소 경계와 정해진 예외를 따로 확인한다.

규범-076 서답형

‘옷이’와 ‘옷 안’의 표준 발음을 각각 쓰고, 뒤에 오는 말의 성격이 발음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설명하시오.

옷이: _____

옷 안: _____

뒤에 오는 말의 성격과 발음 차이: _____

규범-077 선택형

발음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읽고 [일꼬] — 용언 어간의 ㄺ이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된다.
② 읽고 [익꼬] — ㄺ은 어느 환경에서나 ㄱ으로만 발음된다.
③ 읽다 [일다] — ㄺ은 뒤 소리와 관계없이 ㄹ로만 난다.
④ 국물 [국물] — 받침 ㄱ은 ㅁ 앞에서도 그대로 난다.
⑤ 신라 [신나] — ㄹ은 ㄴ 뒤에서 반드시 ㄴ이 된다.

규범-078 서답형

‘굳이 [구지]’를 근거로 ‘견디다’도 [견지다]로 읽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쓰시오.

답: _____

근거·설명: _____

_____

규범-079 선택형

표준 발음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솜이불 [소미불] / 송별연 [송별련]
② 솜이불 [솜니불] / 송별연 [송벼련]
③ 솜이불 [솜니불] / 송별연 [송별련]
④ 솜이불 [소미불] / 송별연 [송벼련]
⑤ 솜이불 [솜이불] / 송별연 [송변년]

규범-080 서답형

‘끈을 감고’의 ‘감고’는 [감꼬], ‘밤도 길다’의 ‘밤도’는 [밤도]이다. 둘 다 ㅁ 받침 뒤인데 발음이 다른 이유를 문법적 구성으로 설명하시오.

답: _____

근거·설명: _____

_____

개념 연결 — 다음 편으로

어문 규범은 지금의 말과 글을 일정한 기준으로 적고 읽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말의 소리·어휘·문법·표기 방식은 역사 속에서 달라져 왔다. 다음 **문법10 · 국어의 변화와 문자**에서는 과거의 국어 자료를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고, 한글의 창제 원리와 문자 생활을 살펴본다.

빠른 정답

선택형은 정답 번호, 서답형은 핵심 답을 제시한다. 서답형의 설명 범위와 인정 기준은 상세 해설에서 확인한다.

문항	정답·핵심 답	문항	정답·핵심 답
001	③	041	①
002	밭+이의 형태·의미를 드러냄	042	조사는 붙임 / 의존 명사는 띄움
003	⑤	043	④
004	꽃이라는 공통 형태를 유지하여 뜻을 드러냄	044	십이억 삼천만 사천
005	②	045	③
006	ㄱ 뒤의 규칙적인 된소리를 그대로 적지 않음	046	하루만(조사) / 사흘 만에(의존 명사)
007	①	047	②
008	음절 반복인 똑똑·쌉쌀은 예외	048	갈지(어미) / 떠난 지(의존 명사)
009	④	049	⑤
010	무늬 / 같이	050	노력한 만큼 / 나만큼
011	②	051	③
012	ㄴ 뒤 율 / ㅂ 뒤 률	052	읽어 보다 / 먹고 싶다 / 아는 척하다; 먹고싶다는 불가
013	④	053	②
014	신-+여성의 구조	054	단일 용언과 활용형이 긴 합성 용언의 차이
015	①	055	⑤
016	들어 / ㄷ→ㄹ	056	친구야, 같이 가자. / 부르는 말의 구분
017	⑤	057	④
018	-이··음은 원형 밝힘 / -애가 붙은 마개는 밝히지 않음	058	그는 “내일 만나자.”라고 말했다.
019	③	059	①
020	들어—듣다 / 도와—돕다 / 파래—파랗다	060	① 나 ② 친구 / 말의 묶임과 뜻을 구별
021	⑤	061	②

문항	정답·핵심 답	문항	정답·핵심 답
022	나무는 모음 끝 / 길은 자음 끝	062	원칙 [우리의] / 허용 [우리에]; 모두 표준
023	①	063	⑤
024	(1) [콘날] (2) ㄴ 덧남 (3) ㅅ→ㄷ→ㄴ	064	원칙 [민주주의의 의의] / 조건에 맞는 허용 [민주주이에 의이]
025	④	065	①
026	되고 / 돼(되어)	066	[무니] / [혀븨·혀비]; 원래 초성과 연음의 차이
027	③	067	③
028	하 전체 탈락 / ㅏ 탈락 뒤 ㅎ+ㄱ→ㅋ	068	[시계·시게] / 예·례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
029	②	069	④
030	해 / 봐 / 줘 / 쳐 / 갖고	070	[쩌] / [다처] / [주의·주이] / [히망]
031	④	071	⑤
032	읽던(회상) / 타든·걸어가든(선택)	072	① [밤] ② [밤:]
033	③	073	③
034	의자로서 / 자격·역할	074	동물 [말] / 언어 [말:]
035	⑤	075	④
036	취향은 다르다 / 불일치와 오류의 구별	076	[오시] / [오단]; 조사·실질 형태소의 차이
037	②	077	①
038	깨끗이 / 조용히 / 틈틈이	078	형식 형태소와의 경계 / 형태소 내부의 차이
039	①	079	②
040	다르다 / 틀리다	080	용언 어간+어미 / 체언+조사의 차이

상세 해설

A1 들리는 대로만 쓰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규범-001 해설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대괄호 안은 올바른 발음이다. 표기와 발음을 구별해야 한다.
②	오답	형태를 밝혀 '꽃만'이라고 적는다.
③	정답	달라진 발음 속에서도 '꽃'이라는 형태를 유지한다.
④	오답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⑤	오답	소리를 반영하는 원리와 형태를 밝히는 원리가 함께 작용한다.

판단의 핵심: 발음이 달라도 같은 뜻의 부분은 표기에서 유지할 수 있다.

규범-002 해설

정답 예시: 체언 '밭'과 조사 '이'의 형태를 구별하여 적어 '밭'의 뜻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때문이다.

인정 기준: ① 밭과 조사 이의 결합 ② 밭의 형태·의미를 드러낸다는 설명을 모두 포함하면 인정한다. 단순히 "맞춤법이어서"는 불충분하다.

판단의 핵심: 형태를 밝히는 표기는 말의 짜임을 보여 준다.

규범-003 해설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맞춤법은 표기 규칙이다. 꽃이의 표준 발음은 [꼬치]이다.
②	오답	꽃+이처럼 형태소를 구별하더라도 조사는 붙인다.
③	오답	꽃만 [꼰만]처럼 일치하지 않는 예가 있다.
④	오답	맞춤법은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
⑤	정답	나무는 발음과 표기가 직접 대응하는 예이다.

판단의 핵심: 소리와 형태는 맞춤법을 설명하는 두 관점이다.

규범-004 해설

정답 예시: 들리는 대로 '꼬치·꼰만'이라고 쓰면 공통된 '꽃'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꽃이·꽃만'으로 적으면 같은 뜻의 부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인정 기준: 소리대로 쓴 두 형태의 차이와 '꽃'을 유지했을 때의 이점을 연결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소리의 차이보다 의미의 공통점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다.

규범-005 해설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꽃과 이라는 두 형태소가 결합했다.
②	정답	형태 구별과 띄어쓰기 여부는 같은 판단이 아니다.
③	오답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	오답	[꼰만]은 비음화가 적용된 표준 발음이다.
⑤	오답	꽃이·꽃만처럼 표기는 유지되어도 발음은 달라질 수 있다.

판단의 핵심: 붙여 쓴다고 말의 내부 구조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A2 된소리로 들리면 모두 쌍자음으로 쓸까? — 소리와 다르게 적는 말

규범-006 해설

정답 예시: ㄱ 받침 뒤에서 ㅅ이 규칙적으로 된소리로 나므로, 그 소리를 쌍자음 표기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국수'로 적는다.

인정 기준: ㄱ 받침 뒤의 규칙적인 된소리와 예사소리 표기를 연결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규칙적으로 생기는 된소리를 모두 쌍자음으로 적지는 않는다.

규범-007 해설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ㄱ 받침 뒤의 된소리 발음은 쌍자음 표기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②	오답	발음은 맞지만 표기는 '국수'이다.
③	오답	발음은 맞지만 표기는 '갑자기'이다.
④	오답	표기는 '무늬'이다.
⑤	오답	'함께'의 뜻인 부사는 '같이'로 적는다. '가치'는 다른 단어이다.

판단의 핵심: 발음이 맞아도 표기는 틀릴 수 있다.

규범-008 해설

정답 예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는 '똑똑·쌉쌀'은 ㄱ·ㅂ 받침 뒤에도 쌍자음을 적으므로 '절대로'라고 할 수 없다.

인정 기준: 반복되는 음절이라는 조건과 두 예 중 하나 이상을 연결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일반 원칙을 설명할 때 규정된 예외를 지우면 안 된다.

규범-009 해설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국수는 현재 표기가 바르다.
②	오답	어깨는 두 모음 사이의 된소리를 쌍자음으로 적는다.
③	오답	국수는 [국쑤]로 발음한다.
④	정답	어깨와 국수는 된소리가 나타나는 조건과 표기 방식이 다르다.
⑤	오답	둘 다 똑똑·쌉쌀 같은 음절 반복 사례가 아니다.

판단의 핵심: 같은 된소리라도 표기에 반영하는 조건이 다르다.

규범-010 해설

정답 예시: 무니 → 무늬 / 가치 → 같이

인정 기준: 두 낱말을 모두 고치면 인정한다. '가치'가 '함께'의 뜻이라는 문맥을 유지한다.

판단의 핵심: 문맥과 형태를 함께 보아 동음인 표기를 구별한다.

A3 단어 중간의 ‘렬·률’도 ‘열·율’이 될까?

규범-011 해설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비률은 비율로 적어야 한다.
②	정답	모음 뒤와 ㄴ 받침 뒤에는 율, 그 밖의 받침 뒤에는 률을 쓴다.
③	오답	백분률은 백분율로 적어야 한다.
④	오답	확율은 확률로 적어야 한다.
⑤	오답	세 낱말 모두 잘못 적었다.

판단의 핵심: ‘렬·률’은 모음과 ㄴ 받침 뒤에서 ‘열·율’이 된다.

규범-012 해설

정답 예시: 백분율은 ‘분’의 ㄴ 받침 뒤이므로 율로 적고, 법률은 ‘법’의 ㅂ 받침 뒤이므로 률로 적는다.

인정 기준: ㄴ과 ㅂ의 차이 및 각각의 표기를 모두 제시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첫머리가 아니어도 앞 음절의 조건을 확인한다.

규범-013 해설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한자음에 적용되는 규칙을 외래어에 확대했다.
②	오답	첫머리가 아니므로 녀를 유지하여 남녀로 적는다.
③	오답	해당 한자음은 첫머리에서 ㄹ이 ㄴ으로 바뀐다.
④	정답	의존 명사 년은 두음 법칙 적용의 예외이다.
⑤	오답	첫머리의 려는 여로 적는다.

판단의 핵심: 두음 법칙에는 적용 대상과 예외가 있다.

규범-014 해설

정답 예시: 자립적인 말 '여성' 앞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신-'이 붙은 구조이므로 '여성'에 적용된 두음 법칙을 유지한다.

인정 기준: 신-과 여성의 결합 구조 및 여성 표기의 유지를 설명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합성·결합 구조도 두음 법칙 표기에 영향을 준다.

규범-015 해설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모음 뒤의 렬은 열로 적는다.
②	오답	두음 법칙을 단어 끝에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③	오답	경력은 첫머리가 아니며 렬·률에 관한 조건도 아니다.
④	오답	남녀처럼 첫머리가 아니면 녀가 유지된다.
⑤	오답	확률·법률처럼 률을 적는 한자어도 있다.

판단의 핵심: 특정 한자음의 조건을 다른 소리에 넓혀 적용하지 않는다.

A4 원형을 밝힌다면 '듣어'라고 써야 할까?

규범-016 해설

정답 예시: 들어. ㄷ 불규칙 활용이 적용되어 어간 끝 ㄷ이 ㄹ로 바뀌기 때문이다.

인정 기준: 들어라는 표기와 ㄷ→ㄹ의 변화를 모두 적으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불규칙 활용의 변화는 표기에 반영한다.

규범-017 해설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듣어는 들어로 고쳐야 한다.
②	오답	돕아는 도와로 고쳐야 한다.
③	오답	파랗아는 파래로 고쳐야 한다.
④	오답	먹어는 어간 먹-을 밝혀 적는다.
⑤	정답	각각 규칙 활용과 ㄷ·ㅂ·ㅎ 불규칙 활용을 바르게 적었다.

판단의 핵심: 원형 유지와 불규칙 활용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다.

규범-018 해설

정답 예시: '깊이·웃음'은 '-이··음'이 붙으므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마개'는 '막-'에 그 밖의 모음 접미사 '-애'가 붙으므로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따라서 파생어라고 모두 원형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

인정 기준: '-이··음'과 다른 모음 접미사 '-애'를 구별하고, 원형을 밝히는지 여부를 각 예와 연결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접미사의 종류에 따라 어근의 원형을 밝히는 방식이 달라진다.

규범-019 해설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들어는 올바른 활용형이다.
②	오답	듣다의 활용형으로 듣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정답	듣-의 ㄷ이 ㄹ로 바뀐 형태를 적었다.
④	오답	-어는 용언에 결합하는 어미이다.
⑤	오답	개별 변화의 반영이 형태를 밝히는 원리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 규정된 형태 변화와 표기 오류를 구별한다.

규범-020 해설

정답 예시: 들어 — 듣다 / 도와 — 돕다 / 파래 — 파랗다

인정 기준: 세 표기와 기본형의 연결이 모두 맞으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달라진 활용형에서도 기본형과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B1 된소리가 나면 사이시옷도 넣을까?

규범-021 해설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말의 종류와 앞말의 끝 등 다른 조건도 필요하다.
②	오답	초점은 사이시옷을 적는 여섯 한자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오답	표준 발음은 [나문닙]이다.
④	오답	일반적인 사이시옷 표기 대상에 외래어 결합을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정답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판단의 핵심: 사잇소리가 난다는 사실만으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없다.

규범-022 해설

정답 예시: 나무는 모음으로 끝나 다른 조건도 충족하면 나뭇가지로 적지만, 길은 자음으로 끝나므로 [길까]로 발음되어도 길가로 적는다.

인정 기준: 나무의 모음 끝과 길의 자음 끝, 두 표기의 차이를 모두 연결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지는 사이시옷 표기의 필수 조건이다.

규범-023 해설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셋방·찻간·툇간과 함께 여섯 예외에 속한다.
②	오답	초점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③	오답	초점은 예외가 아니며 나뭇잎은 고유어 합성어이다.
④	오답	콧날은 고유어 합성어이다.
⑤	오답	길가와 손등은 해당 한자어 예외가 아니다.

판단의 핵심: 한자어의 사이시옷 예외는 정해진 여섯 말이다.

규범-024 해설

정답 예시: (1) [콘날] (2) '코+날'에서 뒷말의 ㄴ 앞에 ㄴ 소리가 덧나므로 앞말에 사이시옷을 받쳐 '콧날'로 적는다. (3) 받침 ㅅ → [ㄷ](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ㄴ](비음화).

인정 기준: 세 항목을 각각 답하되, (2)는 합성 때 덧나는 ㄴ, (3)은 이미 적힌 ㅅ이 ㄷ을 거쳐 ㄴ이 되는 과정을 구별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표기를 정할 때와 적힌 말을 읽을 때는 출발점이 다르다.

규범-025 해설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나무까지]가 원칙이고 [나묻까지]도 허용되므로 '로만'은 틀렸다. [나뭇까지]처럼 받침 ㅅ을 [ㅅ]으로 읽지도 않는다.
②	오답	앞말 손의 형태를 유지하여 손등으로 적는다.
③	오답	발음과 표기를 구별하여 나뭇잎으로 적는다.
④	정답	사이시옷 뒤의 된소리 발음과 ㅅ을 ㄷ으로 소리 내는 허용 발음을 함께 인정한다.
⑤	오답	횟수는 정해진 예외이며 일반화할 수 없다.

판단의 핵심: 허용 발음과 올바른 표기를 각각 판단한다.

B2 '돼'는 언제 쓰고, 준말은 어떻게 적을까?

규범-026 해설

정답 예시: ① 되고 ② 돼 / ②의 본말: 되어

인정 기준: 두 표기와 '되어'를 모두 쓰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되어로 풀리는 자리에 돼를 쓴다.

규범-027 해설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되고에는 -어가 없으므로 돼고로 줄이지 않는다.
②	오답	올바른 준말은 생각건대이다.
③	정답	되었-은 됐-으로 줄어든다.
④	오답	ㅎ이 남아 ㄱ과 합쳐지므로 간편케가 된다.
⑤	오답	가저는 발음을 적은 것으로, 올바른 활용형 표기는 가져이다.

판단의 핵심: 준말의 표기는 본말의 짜임에 근거한다.

규범-028 해설

정답 예시: 생각건대는 하 전체가 줄고, 간편케는 ㅏ가 줄어 남은 ㅎ이 뒤의 ㄱ과 합쳐져 ㅋ이 된다.

인정 기준: 하 전체의 탈락과 ㅏ 탈락 뒤 ㅎ+ㄱ→ㅋ을 구별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같은 하라도 앞 받침 소리에 따라 줄어드는 방식이 다르다.

규범-029 해설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돼는 되어의 준말이다.
②	정답	활용형의 표기와 발음을 구별한 설명이다.
③	오답	‘하여’의 준말은 ‘해’이다.
④	오답	되어·돼처럼 본말과 준말이 함께 쓰일 수 있다.
⑤	오답	올바른 준말은 갖고이다.

판단의 핵심: 준말의 존재가 본말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규범-030 해설

정답 예시: 해 / 봐 / 줘 / 쳐 / 갖고

인정 기준: 제시한 순서대로 다섯 표기가 모두 맞으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줄어든 소리와 형태에 맞추어 준말을 적는다.

B3 ‘안·않’, ‘-던··든’, ‘로서·로써’는 무엇으로 가를까?

규범-031 해설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용언 앞의 부사는 안이므로 안 한다가 맞다.
②	오답	활용하는 어간은 않-이므로 않는다로 적는다.
③	오답	‘하지 않았다’로 고친다. ‘아니하였다’의 준말이므로 어간 ‘않-’을 쓴다.
④	정답	-지 뒤에서 아니하-의 준말 않-에 어미가 붙었다.
⑤	오답	‘안 하고’로 고친다. 용언 ‘하고’를 꾸미는 부사 ‘안’을 앞에 띄어 쓴다.

판단의 핵심: 부사 안과 활용하는 어간 않-을 구별한다.

규범-032 해설

정답 예시: ① 읽던: 과거의 경험·상황을 회상함. ② 타든, 걸어가든: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음.

인정 기준: 세 자리의 표기와 회상·선택의 구별을 모두 제시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던은 회상, -든은 선택의 의미를 나타낸다.

규범-033 해설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대표는 자격이고 대화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다.
②	오답	현재 표기가 문맥에 맞다.
③	정답	두 조사의 기능을 문맥에 맞게 구별했다.
④	오답	문맥상의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⑤	오답	추상적인 방법도 수단이 될 수 있다.

판단의 핵심: 대상의 종류보다 문장에서의 자격·수단을 본다.

규범-034 해설

정답 예시: '의자로서 제 역할을 한다'가 알맞다. 의자라는 자격·역할을 나타내므로 로서를 쓰며 물건인지 여부로 결정하지 않는다.

인정 기준: 로서로 고친 표기와 자격·역할이라는 근거를 포함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로서·로써는 사람과 물건의 구별이 아니다.

규범-035 해설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과거 경험을 회상하면 -던이 쓰일 수 있다.
②	오답	뒤의 한 단어만으로 모든 경우를 결정할 수 없다.
③	오답	회상과 선택이라는 기능 차이가 있다.
④	오답	골랐다·고르던 등 과거 관련 표현을 만들 수 있다.
⑤	정답	문장 전체의 과거 시점과 -든의 선택 의미는 구별된다.

판단의 핵심: 표현의 기능은 문장 전체의 시점과 별도로 판단한다.

B4 뜻과 형태에 맞는 말은 어떻게 고를까?

규범-036 해설

정답 예시: '우리는 좋아하는 색이 다르다.'로 고친다. 취향이 같지 않다는 뜻이지 정답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정 기준: 다르다로 고친 문장과 불일치·오류의 차이를 포함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같지 않음과 옳지 않음을 구별한다.

규범-037 해설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명령의 종결 어미 -오를 써서 오시오로 적는다.
②	정답	'저도' 뒤에 듣는 사람을 높이는 보조사 '요'가 붙었다.
③	오답	이 자리에는 듣는 사람을 높이는 보조사 '요'를 써야 한다.
④	오답	오시오의 -오는 종결 어미이다.
⑤	오답	이쪽으로 오시오라는 문맥에서는 오시오가 바르다.

판단의 핵심: 소리의 유사성보다 어미·조사의 기능을 구별한다.

규범-038 해설

정답 예시: 깨끗이 / 조용히 / 틈틈이

인정 기준: 세 표기를 모두 바르게 쓰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하다와 결합한다고 모두 -히를 쓰는 것은 아니다.

규범-039 해설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하다가 결합하지만 부사는 -이로 끝나므로 해당 일반화를 반박한다.
②	오답	제시한 일반화에 맞는 사례이므로 반례가 아니다.
③	오답	제시한 일반화에 맞는 사례이다.
④	오답	제시한 일반화에 맞는 사례이다.
⑤	오답	제시한 일반화에 맞는 사례이다.

판단의 핵심: 반례는 일반화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결론에는 맞지 않는 예이다.

규범-040 해설

정답 예시: ① 다르다 ② 틀리다. ①은 서로 같지 않음, ②는 정답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음을 나타낸다.

인정 기준: 두 표기와 비교·정오의 기준 차이를 모두 쓰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다름을 모두 틀림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C1 조사는 단어인데 왜 붙여 쓸까?

규범-041 해설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조사 에서만은 붙이고, 의존 명사 수는 띄었다.
②	오답	조사 에서는 앞말 학교에 붙인다.
③	오답	조사 만도 앞말에 이어 붙인다.
④	오답	의존 명사 수를 앞말과 띄어야 한다.
⑤	오답	관형사 그와 명사 책은 띄어 쓴다.

판단의 핵심: 조사는 붙이고 의존 명사는 띄운다.

규범-042 해설

정답 예시: 조사는 단어여도 앞말에 붙이고, 의존 명사는 홀로 쓰이기 어려워도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인정 기준: 조사와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를 모두 바르게 설명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단어의 성격과 개별 띄어쓰기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규범-043 해설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숫자와의 결합이라는 허용 조건을 다른 경우로 확대했다.
②	오답	단위 명사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③	오답	조사가 거듭 붙어도 모두 앞말에 붙인다.
④	정답	숫자와 결합한 단위 명사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⑤	오답	및은 사과와 배 사이에서 띄어 쓴다.

판단의 핵심: 허용에는 조건이 있으므로 닮은 예에 무조건 넓히지 않는다.

규범-044 해설

정답 예시: 십이억 삼천만 사천

인정 기준: 억·만 단위 경계 두 곳을 정확히 띄우면 인정한다. 숫자 표기로 바꾸는 답은 이 문항의 요구와 다르다.

판단의 핵심: 수를 한글로 적을 때에는 만 단위로 띄운다.

규범-045 해설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이 문장의 만은 한정의 뜻을 더하는 조사이다.
②	오답	에서와 만은 이 문장에서 조사이다.
③	정답	명사 뒤에 조사 두 개가 차례로 붙은 구조이다.
④	오답	띄어쓰기와 형태소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⑤	오답	조사는 단어별 띄어쓰기의 예외이다.

판단의 핵심: 붙여 쓴 한 덩어리 안에 조사가 둘 이상 있을 수 있다.

C2 같은 '뿐·대로·만큼·만·지'인데 왜 띄어쓰기가 다를까?

규범-046 해설

정답 예시: ① 하루만 쉬었다: 한정의 조사. ② 사흘 만에 다시 만났다: 시간이 흐른 뜻의 의존 명사.

인정 기준: 두 문장의 띄어쓰기를 바르게 고치고 ① 조사 ② 의존 명사를 구별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같은 만이라도 기능과 뜻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진다.

규범-047 해설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명사 계획 뒤의 조사 대로는 붙인다.
②	정답	관형어 들은 뒤의 대로는 의존 명사이므로 띈다.
③	오답	너 뒤의 조사 뿐은 붙인다.
④	오답	웃을 뒤의 의존 명사 뿐은 띈다.
⑤	오답	대명사 나 뒤의 조사 만큼은 붙인다.

판단의 핵심: 명사 뒤의 조사와 관형어 뒤의 의존 명사를 구별한다.

규범-048 해설

정답 예시: ① 그가 갈지 모르겠다: 어미 -ㄹ지. ② 그가 떠난 지 오래다: 시간이 지난 뜻의 의존 명사 지.

인정 기준: 갈지·떠난 지와 어미·의존 명사의 구별을 모두 제시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어미와 시간 경과의 의존 명사를 구별한다.

규범-049 해설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②	오답	'이다'는 서술격 조사라서 앞말에 붙인다. 문법 요소의 개수만큼 띄우는 것이 아니다.
③	오답	웃을 뿐처럼 의존 명사로도 쓰인다.
④	오답	이 문장의 이다는 앞말에 붙여 쓰는 서술격 조사이다.
⑤	정답	뿐은 의존 명사이고 이다는 앞말에 붙여 쓴다.

판단의 핵심: 한 표현 안에서도 붙이는 경계와 띄는 경계가 다를 수 있다.

규범-050 해설

정답 예시: 나는 노력한 만큼 받았고, 동생은 나만큼 받았다.

인정 기준: 노력한 만큼과 나만큼을 모두 바르게 쓰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만큼은 관형어 뒤에서는 의존 명사, 체언 뒤에서는 조사로 쓰인다.

C3 보조 용언은 붙여 써도 모두 맞을까?

규범-051 해설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원칙은 띄어 쓰기이다.
②	오답	-고 싶다는 붙여 쓰기 허용 대상이 아니다.
③	정답	-어 뒤의 보조 용언 보다 구성으로 붙임도 허용한다.
④	오답	앞말에 조사가 붙으면 뒤 보조 용언을 띈다.
⑤	오답	중간에 조사가 있어 규정에 따라 띄어야 한다.

판단의 핵심: 원칙과 허용 범위를 나누어 판단한다.

규범-052 해설

정답 예시: 읽어 보다 / 먹고 싶다 / 아는 척하다. 붙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먹고 싶다이다.

인정 기준: 세 원칙 표기와 먹고 싶다의 선택을 모두 쓰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원칙형을 묻는 문제와 허용 여부를 묻는 문제를 구별한다.

규범-053 해설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합성 용언의 활용형 덤벼들어가 두 음절을 넘어 붙일 수 없다.
②	정답	본용언 나가다의 활용형 나가는 두 음절이어서 붙임도 허용된다.
③	오답	앞말에 조사 도가 붙었으므로 뒤 보조 용언을 띈다.
④	오답	중간에 조사 도가 있어 아는 척도 한다로 띈다.
⑤	오답	-고 싶다는 붙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 합성 용언이라도 활용형이 두 음절이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규범-054 해설

정답 예시: 가르치다는 단일 용언이므로 -어 주다의 붙임 허용에 해당한다. 덤벼들다는 합성 용언이고 활용형 덤벼들어가 세 음절 이상이므로 뒤 보조 용언과 띄어 쓴다.

인정 기준: 단일·합성의 차이와 덤벼들어의 활용형 길이를 함께 설명하면 인정한다. “세 음절 이상은 모두 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 활용형의 길이만이 아니라 용언의 짜임도 확인한다.

규범-055 해설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도는 조사이므로 척에 붙인다.
②	오답	조사가 들어간 구성에는 같은 허용을 적용할 수 없다.
③	오답	아는 척도 한다처럼 필요한 경계를 띈다.
④	오답	여기서는 의존 명사 척과 조사 도의 결합이다.
⑤	정답	붙여 쓰기 허용을 제한하는 조건이 생겼다.

판단의 핵심: 조사의 개입은 보조 용언의 붙임 허용을 제한한다.

C4 문장 부호는 숨 쉬는 곳에만 찍을까?

규범-056 해설

정답 예시: 친구야, 같이 가자. 쉼표는 상대를 부르는 말 ‘친구야’를 뒤 문장과 구분한다.

인정 기준: 친구야 뒤 쉼표와 부르는 말의 구분이라는 기능을 쓰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쉼표는 문장의 내부 구조를 드러낼 수 있다.

규범-057 해설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보통의 명령문 끝에는 마침표도 쓴다.
②	오답	문장 전체는 물음의 내용을 전하는 서술문이다.
③	오답	부름이나 나열 등 문장 구조와 기능에 따라 쓴다.
④	정답	명령문이라고 느낌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⑤	오답	큰따옴표로 직접 인용 범위를 표시할 수 있다.

판단의 핵심: 부호는 문장 전체의 기능과 구조에 맞춘다.

규범-058 해설

정답 예시: 그는 “내일 만나자.”라고 말했다.

인정 기준: 제시한 인용 범위 전체를 큰따옴표로 감싸면 인정한다. 직선형 큰따옴표도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직접 인용의 범위를 부호로 분명하게 표시한다.

규범-059 해설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물음의 내용을 전하는 서술문이므로 마침표가 알맞다.
②	오답	직접 질문이므로 물음표가 알맞다.
③	오답	제시한 뜻에서는 서술문이므로 마침표가 알맞다.
④	오답	제시한 뜻에서는 물음표가 알맞지 않다.
⑤	오답	제시한 뜻에서는 마침표를 쓰는 것이 알맞다.

판단의 핵심: 물음의 내용이 포함되어도 전체 문장은 서술문일 수 있다.

규범-060 해설

정답 예시: ① 나 ② 친구. 쉼표는 어떤 말이 어떤 말과 묶이는지 문장의 구조를 보여 준다. ①의 ‘울면서’는 나의 배웅 동작에, ②의 ‘울면서’는 친구의 떠나는 동작에 이어진다.

인정 기준: 두 사람을 바르게 쓰고, 쉼표가 말의 묶임과 뜻을 구별한다는 설명을 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쉼표는 숨 쉬는 길이뿐 아니라 문장의 구조와 뜻을 드러낸다.

D1 허용 발음은 틀려도 봐주는 발음일까?

규범-061 해설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표준 발음을 묻는다면 허용 발음도 맞을 수 있다.
②	정답	허용은 규범이 함께 인정한다는 뜻이다.
③	오답	사용 빈도만으로 표준 여부를 정할 수 없다.
④	오답	발음의 허용과 표기 규정은 구별된다.
⑤	오답	원칙 발음을 특정하여 묻는 경우에는 구별해야 한다.

판단의 핵심: 허용도 표준이지만 원칙과의 구분은 유지한다.

규범-062 해설

정답 예시: 원칙 [우리의], 허용 [우리에]. 두 발음 모두 표준 발음이다.

인정 기준: 두 발음을 원칙·허용으로 구별하고 모두 표준이라고 설명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조사 의의 [에] 발음은 표준으로 허용된다.

규범-063 해설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소유 관계의 조사 의 표기는 바꾸지 않는다.
②	오답	[우리에]도 규정이 인정한 표준 발음이다.
③	오답	조사 의에 적용되는 조건을 의자에 확대할 수 없다.
④	오답	의와 에는 표기와 문법적 기능이 서로 다른 조사이다.
⑤	정답	허용 발음은 글자의 교체를 뜻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 표준 발음을 인정해도 올바른 표기를 별도로 유지한다.

규범-064 해설

정답 예시: 원칙 [민주주의의 의의] / 조건에 맞는 허용 [민주주이에 의이]

인정 기준: 조건에 지정한 세 곳에 각각 [이]·[에]·[이]를 적용하고 '의의'의 첫 '의'는 [의]로 유지해야 한다. 일부만 바꾼 발음도 표준일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세 곳 모두' 조건에는 맞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 같은 '의'라도 음절의 위치와 조사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발음이 다르다.

규범-065 해설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의자는 [의자]로 읽으며 첫 음절 이외의 의에 대한 허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오답	의의 위치가 달라 같은 조건이 아니다.
③	오답	규정상의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오답	첫 음절의 '의'(의자)나 조사 '의'([에]도 허용)처럼 [이]로만 읽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⑤	오답	'의자'는 한 단어인 명사이고, 조사 '의'가 붙은 말이 아니다.

판단의 핵심: 다른 단어의 허용 조건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D2 '–ㅢ'는 언제 [의], [이], [에]로 읽을까?

규범-066 해설

정답 예시: 무늬 [무니], 협의 [혀븨/혀비]. 협의의 의는 원래 초성 자음이 없는 음절이며, 앞 받침 ㅂ이 발음에서 넘어왔으므로 첫 음절 이외의 의에 관한 원칙·허용을 적용한다.

인정 기준: 각 발음 및 원래 초성과 연음된 자음의 차이를 모두 포함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원래 적힌 초성과 연음으로 넘어온 자음을 구별한다.

규범-067 해설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첫 음절 의의 [이] 발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오답	자음이 초성으로 적힌 ㅢ는 [ㅣ]로 읽어 [무니]가 된다.
③	정답	활용형 져는 [저]로 발음한다.
④	오답	예는 ㅖ를 [ㅔ]로도 읽는 허용의 제외 대상이다.
⑤	오답	다쳐의 표준 발음은 [다처]이다.

판단의 핵심: 활용형 져·쪄·쳐의 모음 발음을 표기와 구별한다.

규범-068 해설

정답 예시: 시계 [시계/시게]. 예·례는 ㅖ를 [ㅔ]로 발음할 수 있는 허용에서 제외되므로 예절을 [에절]로 읽는 데 적용할 수 없다.

인정 기준: 두 발음과 예·례 제외 조건을 모두 적으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허용 규칙에는 제외 조건이 있을 수 있다.

규범-069 해설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이중 모음 발음도 허용한다.
②	오답	조사 의는 [의]가 원칙이고 [에]도 허용된다.
③	오답	희에 자음 ㅎ이 초성으로 적혀 있어 [히망]으로 읽는다.
④	정답	두 발음 방식 모두 표준의 범위에 있다.
⑤	오답	[혀븨]가 원칙이며 [혀비]도 허용된다.

판단의 핵심: 모음의 원칙 발음과 허용 발음을 정확히 구별한다.

규범-070 해설

정답 예시: [쩌] / [다처] / [주의, 주이] / [히망]

인정 기준: 네 항목을 모두 맞히고 주의의 두 발음을 빠짐없이 쓰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같은 모음 규칙도 활용형·음절 위치·초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D3 소리의 길이는 글자 수나 목소리 높이일까?

규범-071 해설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내는 것이다.
②	오답	장단은 높낮이와 다른 특성이다.
③	오답	일반 표기는 눈이고 [:]는 발음 표시이다.
④	오답	눈·밤·말처럼 뜻을 구별하는 데 관여할 수 있다.
⑤	정답	긴소리 표시를 음절 수와 구별한 설명이다.

판단의 핵심: 장단은 길이의 차이이며 글자 수·높낮이와 다르다.

규범-072 해설

정답 예시: ① [밤] ② [밤:]

인정 기준: 두 뜻을 짧은소리와 긴소리에 바르게 연결하면 인정한다. 긴소리를 콜론 :으로 표시한 답도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같은 표기라도 뜻에 따라 소리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다.

규범-073 해설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규정된 장단을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
②	오답	활용 과정에서 짧아지는 경우가 있다.
③	정답	원칙을 제시하면서 예외의 존재도 인정한 설명이다.
④	오답	합성어 뒷말 등 예외가 있다.
⑤	오답	발화 중 강조와 낱말의 규범적 장단은 구별된다.

판단의 핵심: 장단의 원칙에도 합성·활용에 따른 조건과 예외가 있다.

규범-074 해설

정답 예시: 타는 동물은 [말], 언어·이야기의 뜻은 [말:]이다.

인정 기준: 동물/언어의 뜻과 짧음/김을 정확히 연결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문맥으로 뜻을 확정한 뒤 장단을 판단한다.

규범-075 해설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장단이 길다고 글자를 늘려 적지 않는다.
②	오답	길이와 소리의 세기는 다르다.
③	오답	눈은 한 음절이다.
④	정답	표기와 발음의 장단 표시를 구별했다.
⑤	오답	뜻에 따른 규범적 장단과 순간적인 강조는 구별된다.

판단의 핵심: 소리의 길이를 표기의 길이나 세기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는다.

D4 받침 뒤 소리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

규범-076 해설

정답 예시: 옷이 [오시], 옷 안 [오단]. 조사 이 앞에서는 ㅅ이 그대로 연음되고, 실질 형태소 안 앞에서는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바뀐 뒤 연음된다.

인정 기준: 두 발음, 조사/실질 형태소의 구별, 대표음화 유무를 모두 제시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뒤 형태소의 성격이 받침의 연음 방식을 바꾼다.

규범-077 해설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ㄺ의 발음 예외와 뒤의 된소리 발음을 바르게 적용했다.
②	오답	용언 어간 ㄺ 뒤의 ㄱ 앞에서는 ㄹ로 발음한다.
③	오답	읽다는 [익따]이다.
④	오답	비음화로 [궁물]이 된다.
⑤	오답	신라는 유음화로 [실라]가 된다.

판단의 핵심: 겹받침의 발음은 뒤 소리와 용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규범-078 해설

정답 예시: 굳이는 굳-과 형식 형태소 -이가 결합한 경계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견디다의 ㄷ과 ㅣ는 한 형태소 내부에 있으므로 같은 조건이 아니며 [견디다]로 읽는다.

인정 기준: 형식 형태소 결합 경계와 한 형태소 내부를 구별하고 견디다의 발음을 쓰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앞뒤 음만 같아 보여도 형태소 경계가 다르면 규칙 적용이 달라진다.

규범-079 해설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두 말 모두 해당 표준 발음과 다르다.
②	정답	솜이불은 ㄴ 첨가가 적용되고 송별연은 첨가하지 않는 예외이다.
③	오답	송별연에는 ㄴ 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오답	솜이불은 ㄴ을 첨가하여 [솜니불]로 읽는다.
⑤	오답	두 발음 모두 표준 발음이 아니다.

판단의 핵심: ㄴ 첨가의 조건과 첨가하지 않는 예외를 함께 본다.

규범-080 해설

정답 예시: 감고는 ㅁ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감- 뒤에 어미 -고가 결합하여 된소리가 난다. 밤도는 체언 밤 뒤에 조사 도가 붙은 구조여서 같은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정 기준: 용언 어간+어미와 체언+조사의 차이를 두 발음에 연결하면 인정한다.

판단의 핵심: 같은 받침 뒤라도 문법적 결합 관계가 다르면 된소리 규칙이 달라진다.

© 대치동 재우쌤 · 어문 규범편 · 원고 v0.2.1 · PDF v1.1